

인권정보자료실
NSL1.88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결성식

- 일시 : 2003년 8월 7일(목) 오전 11시~12시 30분
-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강당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56-1 성재빌딩 4층 법무법인 해마루
TEL 02-525-5437 FAX 02-525-5439

인권정보자료실

NSL1.88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결성식

- 일 시 : 2003년 8월 7일(목) 오전 11시~12시 30분
- 장 소 : 기독교회관 2층 강당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

자료집 목차

- 4 ■ 결성식 식순
- 5 ■ 경과보고
- 7 ■ 임원소개
- 9 ■ 추진위원 명단
- 12 ■ 격려사 - 박용길(통일맞이 고문)
- 14 박형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 15 ■ 사업계획
- 16 ■ 결성선언문

- 18 <첨부자료 1> 해외민주인사 현황
- 22 <첨부자료 2> 해외민주인사 관련기사 모음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결성식 식순

사회 : 진 광 수 (집행위원, 목사)

1. 개회선언
2. 민중의례
3. 대회사
4. 경과보고
5. 임원소개 및 추인
6. 축 사
7. 격려사
8. 해외민주인사 메시지
9. 해외민주인사 현황 발표
10. 사업계획 발표
11. 해외민주인사 9월 한가위 초청장 낭독
12. 결성선언문 낭독
13. 폐 회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

경 과 보 고

□ 2003. 5. 21

- 민가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범민련남측본부 후원회, 통일연대, 한통련대책위, 5.18기념재단 등 6개 단체가 모여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제 단체 1차 간담회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 간담회 결과 참가자 모두가 이 사업의 취지에 공감을 하고 향후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 위해 이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 2003. 5. 29

-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제 단체 2차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 추진위원회의 명칭을 “(가칭)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로 하고 1차 귀국사업의 시기를 9월 추석으로하기로 하였다.

□ 2003. 6. 12

-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제 단체 3차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워크숍을 7월 3일 진행하기로 하였다.

□ 2003. 6. 24

-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제 단체 4차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 2003. 7. 3

- 시민사회단체 회원 50여명이 참석을 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워크숍을 통해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함을 알리고 폭넓은 단체와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뜻 깊은 행사를 진행하였다.

□ 2003. 7. 8

-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제 단체 5차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 결성식을 8월 7일 기독교회관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2003. 7. 15

-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제 단체 6차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기 위해 조직의 구성을 고문, 공동대표, 집행위원회, 사무국을 두기로 하였으며 추진위원을 300명 모집하기로 하였다.

□ 2003. 7. 24

-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제 단체 7차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 8월 7일 결성식 준비를 점검하였으며 추진위원회의 사무실을 “법무법인 해마루”에 두기로 하였다.

□ 2003. 8. 6

- 추진위원회의 고문 16명, 공동대표 28명, 집행위원 14명의 위촉을 마무리하였다.
- 현재 추진위원회에 192명의 인사들과 14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

임원 소개

■ 고문

강석주	불교인권위원회 고문	박형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강신석	(재)5.18기념재단 이사장	신경림	시인
강희남	범민련남측본부 명예의장	신창균	범민련남측본부 명예의장
고 은	시인	이돈명	민변 고문
김윤수	민예총 이사장	이재현	Western illinois university 명예교수
박상중	참여연대 대표	이종린	범민련남측본부 명예의장
박순경	통일연대 명예대표	임기란	민가협 운영위원
박용길	통일맞이 고문	조화순	목사

■ 공동대표

강정구	동국대 교수	유원호	통일맞이 이사
구중서	평론가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권오현	양심수후원회 회장	이종수	KBS 이사장
김세균	서울대 교수	정진권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이사장
김영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장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
김용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	조성우	민화협 상임의장
김원웅	국회의원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
라창순	범민련남측본부 의장	천정배	국회의원
명진	범민련남측본부 후원회 대표	최병모	민변 회장
박호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	최 열	환경운동연합 대표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
손호철	민교협 공동의장	함세웅	신부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홍근수	자통협 상임공동대표
유영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무처장	황석영	소설가

■ 집행위원

집행위원장 : 임종인 민변 부회장
 대외협력위원장 : 차병직 변호사
 정책위원장 : 한충목 전국연합 집행위원장
 조직위원장 : 박창일 신부
 총무위원장 : 법안 실천불교전국송가회
 홍보위원장 :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집행위원 :
 김성복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총무
 김이경 통일연대 자주교류위원장
 김종근 신부
 이기욱 한통련대책위 집행위원장
 정도상 통일맞이 사무처장
 진광수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채은아 민가협 총무
 황인성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사무총장

■ 사무국

사무국장 : 김건수 통일연대자주교류위원회 사무국장

사무국 :

강곤 민변 대외협력간사
 김수연 범민련
 김재규 통일맞이 사무차장
 안지중 전국연합 사무차장

유한범 한통련대책위 사무국장
 이영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장규호 (재)5.18기념재단 기획부장
 채은아 민가협 총무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명단

진관(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박석률(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국보대책위원장),
 김지영(양심수후원회), 한상권(양심수원회), 탁무권(양심수후원회), 송경용(양심수후원회),
 김호현(양심수후원회), 이정규(양심수후원회), 모성룡(양심수후원회),
 배덕호(재외동포연대 추진위원회 사무국장), 강국진(재외동포신문 기자), 박지수(민족21 기자),
 이원보(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신창수((사)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상임이사),
 최유인(신일정보산업고등학교 교사), 김용수(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지현(천주교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문한성(천주교인권위원회 부위원장), 곽한왕(천주교인권위원회 생명평화분과위원장),
 변연식(천주교인권위원회 국제연대분과위원장), 노진민(천주교통일후원회 대표), 박이섭(신애교회 목사),
 신경하(아현교회 목사), 김진춘(매원교회 목사), 윤문자(새날을 여는 청소년 씬터 목사),
 황광민(석교교회 목사), 도준순(서울세광교회 목사), 임정덕(서울 남연회 총무, 목사),
 원종휘(만석교회 목사), 박인환(화정교회 목사), 박신진(우산교회 목사), 박정훈(고촌교회 목사),
 장병용(등불교회 목사), 이광호(송정교회 목사), 이흥규(성흔교회 목사), 송병구(감리교 본부 선교국 목사),
 이광섭(초항교회 목사), 정연수(오천교회 목사), 정확진(원천교회 목사), 권종철(석천교회 목사),
 최병천(밀알기획 장로), 문선경(창천교회 권사), 김명엽(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간사),
 서경순(민가협 운영위원), 이귀임(민가협 부회장), 이영(민가협 부회장), 임선순(민가협 부회장),
 박미준(민가협), 윤달임(민가협), 김순심(민가협), 이정림(민가협), 차명석((재)5.18기념재단 상임이사),
 조진태((재)5.18기념재단 사무처장), 하연호(5.18민중항쟁 전북 동지회 회장),
 심영배(5.18민중항쟁 전북 동지회 부회장), 최갑선(5.18민중항쟁 전북 동지회 부회장),
 김중길(5.18민중항쟁 전북 동지회 총무), 백현국(5.18민중항쟁 동지회 회장),
 이상술(5.18민중항쟁 동지회 부회장), 이윤기(5.18민중항쟁 동지회 사무국장),
 이경희(5.18민주유공자항쟁 동지회 사무처장), 김태찬(5.18민주유공자항쟁 동지회 사무차장),
 서정훈(광주시민단체협의회), 김강열(시민생활환경회의 상임이사), 김전승(광주흥사단 사무처장),
 윤희봉(민족미래연구소 소장), 노수희(전국연합 공동의장), 이천재(서울연합 의장),
 이용규(인천연합 의장), 엄재철(강원영서연합 의장), 도영호(경기동남부연합 의장),

정수용(대전충남연합 의장), 이영기(대구경북연합 의장), 하해룡(서부경남연합 의장),
 이정미(부산연합 의장), 최현오(울산연합 의장), 오병윤(광주전남연합 의장), 하연호(전주완주연합 의장),
 이세우(김제민주연합 의장), 강민조(유기협 회장), 도강호(민자통 의장), 황건(사월혁명회 상임의장),
 정현찬(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이미혜(반미여성회 회장), 정재욱(한총련 의장),
 전상봉(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고상만(한통련대책위 사무차장), 고정호(한통련대책위 실무위원),
 김성만(한통련대책위 실무위원), 김은주(한통련대책위 실무위원), 김진국(한통련대책위 재정위원장),
 박갑주(한통련대책위 실무위원), 안영민(한통련대책위 실무위원), 윤석연(한통련대책위 실무위원),
 이덕우(한통련대책위 실무위원), 이숙현(한통련대책위 실무위원), 장경주(한통련대책위 실무위원),
 전해철(한통련대책위 재정위부위원장), 김규철(범민련남측본부 부의장), 이규재(범민련남측본부 부의장),
 이태형(범민련남측본부 부의장), 신용관(범민련남측본부 부의장), 한기명(범민련남측본부 부의장),
 서상권(범민련남측본부 부의장), 임동규(범민련남측본부 부의장), 설곡(범민련남측본부 부의장),
 윤기진(범민련남측본부 부의장), 박정숙(범민련남측본부), 이성근(범민련남측본부),
 김영옥(범민련남측본부), 김선분(범민련남측본부), 류금수(범민련남측본부), 변정수(범민련남측본부),
 정효순(범민련남측본부), 류락진(범민련남측본부), 기세문(범민련남측본부), 김병권(범민련남측본부),
 김광렬(범민련남측본부), 전창일(범민련남측본부), 백운학(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장),
 김현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유희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난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념사업부장),
 이현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인수(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장), 홍용학(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황석선(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황정옥(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상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김석중(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송동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중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김진희(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김종철(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만운(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은영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대사업과장), 박종수(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예산기획과장),
 최자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양금식(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찬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수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홍계신(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광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현종철(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양지연(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송병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학술연구부장),
 이근수(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배선화(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박승옥(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기획부
 장), 전여진(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종률(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념사업과장),
 조배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양경희(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김성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권정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문한성(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영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최영동(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경옥(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배영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영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운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남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정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유현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선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심재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승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주영(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택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석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진욱(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인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유정(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백승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원영(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갑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호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찬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유중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상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찬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조광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참가단체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가협, 범민련, 양심수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연합,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통일맞이, 통일연대, 한통련대책위

냉전의 지뢰에 생을 다친 분들을 위하여...

수유리 통일의 집에도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밤의 한 가운데 앉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안에 쌓여온 세월의 두께와 갈피를 온몸으로 실감하게 됩니다.

식민지 시절에 태어나 전쟁과 분단을 겪었고, 민주주의를 위한 거리에서의 투쟁과 늦봄의 옥바라지를 했던 순간들이 활동사진처럼 내 앞에 펼쳐집니다.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 울고 싶었던 순간들도 참 많았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느낌의 막막함과 고통들, 아무리 소리 지르고 울부짖어도 좀체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완강한 풍경들 앞에서 얼마나 자주 절망했더랬습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들을 감옥에 보내고 여름이면 시원한 냉수 한 그릇, 겨울이면 따뜻한 밥 한 그릇인들 목에 넘어가거나 했습니까?

그 모든 순간들을 견디고 견뎌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하지만 증오심의 이데올로기 벽은 아직도 드높기만 합니다. 평화보다는 전쟁을, 화해보다는 긴장을, 협력보다는 갈등을, 인간의 권리보다는 자본의 권리를, 사랑보다는 증오를, 자유보다는 굴종을, 자주보다는 종속을 그럴 듯하게 선전하고 선동하는 사람들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증오심을 이데올로기로 삼아 인터뷰를 하고, 기사며 논설문을 쓰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소설가 이문열의 경우, 미국의 어느 신문에 한국은 좌익이 장악해서 사회가 극도로 혼란에 빠졌다고 기고했습니다. 좌익이 사회를 장악하고 또한 극도로 혼란해진 증거는 대체 무엇입니까? 그렇게 글을 쓴 이유는 오직 증오심 때문입니다. 그 증오심이 민주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막고, 통일을 막고 있는 겁니다. 탈냉전의 상황을 도무지 견딘다는 것 자체가 수치인 그 증오심은 바로 냉전의 지뢰밭에서 태어났습니다. 냉전의 지뢰밭에서 그들은 마음껏 누리고 살았기에 지뢰에 다치면서 지뢰와 투쟁했던 사람들을 증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냉전의 지뢰에 생을 다친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오늘 밤 나는 끝내 고향땅을 밟지

못하고 머나먼 이국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던 윤이상, 이용로 두 분 선생님을 그리워합니다. 아울러 아직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인생에 드리워진 냉전의 장막을, 그 구구절절한 뒷이야기들을 가만히 떠올려 봅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다행히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가 결성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통일맞이>에서도 송두율, 정경모 선생을 비롯한 해외민주인사의 귀국을 위해 여러 차례 노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좌절의 슬픔을 맛보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그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귀국을 보장하는 활동이 빛나는 성과를 거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 8. 7

통일맞이 고문

박 용 길

해외 민주 동지들의 아픔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민주화는 여전히 미완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신화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화의 여정이 끝났다는 말도 들립니다. 많은 부분에서 민주주의가 진척된 것은 참으로 기쁘고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곳곳에는 아직도 독재의 잔재가 남아 있으며 그늘진 곳 또한 많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분투하신 많은 해외의 민주인사들이 과거의 굴레에 갇혀 그토록 바라던 민주화된 조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민주화의 과제가 여전히 미완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졌던 지난 시대의 유물이 조국 사랑의 열정과 혈육의 정마저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며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차가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민족의 아픔 한 가운데 있는 해외의 민주동지들을 위해 국내에서도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 갈래로 진행된 그 간의 노력들이 충분한 결실을 맺지 못한 것 또한 우리들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가 발족하는 것이 같은 노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벌여나가며 또한 국민적인 민주역량을 모아 민주와 통일을 향한 길에 나서고자 뜻에 다름 아닙니다. 모쪼록 이 같은 노력이 하루속히 큰 결실을 맺어 그 분들의 소중한 뜻에 한국민의 뜨거운 보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넘어야 할 산이 높고, 극복해야 할 과제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기 위해 더불어 함께 노력한다면 머지않아 든든한 디딤돌을 놓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귀한 뜻에 동참한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 8. 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박형규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사업 계획

1차 귀국사업 추진시기 : 2003년 9월 18일~20일

조직사업

-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각계각층 탄원운동을 전개한다.
-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모집을 계속 진행한다.

대국민 여론 홍보사업

- 방송사 등을 통하여 해외민주인사 문제를 기획프로그램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한다.
- 홈페이지 제작,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관심 있는 분들의 이해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간다.
- 적절한 시기와 계기를 맞추어 캠페인, 기자회견 등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높여 나간다.

해외민주인사의 현황에 대한 조사 및 법률적 대응 사업

- 해외민주인사의 근황과 해외민주화운동에 대한 연혁을 자료로 정리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지평과 연혁을 세계적인 범주로 적극 넓혀 나가는 계기를 만든다.
- "해외 방문단"을 조직하여 해외를 직접 방문함으로써 조사사업에 박차를 가하며 나아가 해외에서도 귀국운동을 본격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
- 해외민주인사의 귀국에 걸림돌이 되는 제반 법률적 조항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한다.

대 국회 사업

- 국회 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 국회 본회의와 분과위원회에서의 질의를 통하여 국회차원의 관심과 결의를 촉구한다.

정부 관련기관과의 교섭

- 청와대, 국정원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대통령, 국정원장과의 면담을 추진한다.
- 관련 주무부처(법무부장관, 민정수석, 정무수석)와의 교섭을 추진한다.
- 입국불허 해외민주인사들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한다.

세계 인권진영과의 연대 문제

- 유엔 인권위 제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안 검토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 결 성 선 언 문

우리는 오늘 지난 30여 년간 해외에서 분단된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애쓰고도 조국을 방문할 수 없는 사람들, 해외민주통일인사들의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조국은, 민족은, 동포는 하나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으로 갈라진 이산가족의 상봉과 왕래가 시작되어 수만 명의 동포들이 남북을 오가고 있으며 동시에 철길과 도로가 열려 남북화해의 기운이 드높아지고 있는 지금 일본, 유럽, 미주 등 해외에서 고통과 고난의 시절을 감수하며 조국의 민주와 통일을 위해 노력해 오셨던 해외민주통일인사들의 고국방문은 아직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 한국민주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조직은 한통련이다. 한통련은 1973년 8월 13일 민단에 소속한 양심적 인사들이 집결하여 유신체제를 반대하고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결성한 한민통의 후신이다. 한통련은 일본에서 차별받는 동포들에게 민족주체성을 심어주고 조국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사업을 계속해 왔으며 조국이 어려울 때 민주화와 통일에 헌신하였다. 이에 독재정권은 1978년 '재일교포유학생사건'을 조작하여 아무 관련없는 한민통에 반국가단체라는 낙인을 찍었다. 이후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북한국적의 조총련 사람들도 한국을 방문하는 지금 한국국적의 한통련 회원들은 '반국가단체 성원'으로 여권조차 발급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1960년대에 유럽으로 유학을 떠난 학생들과 '경제중흥의 임무'를 띠고 비행기를 탄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이 있다. 유럽인들의 차별정책에 맞서는 과정에서 이들은 민주적 권리에 눈떴고, 때마침 유신이 선포되면서 독재정치가 극에 달하자 기꺼이 조국민주화의 깃발을 유럽에서 올렸다. 이 와중에 '정치망명'의 길을 선택해야만 했던 이들은 30여 년의 망향가를 가슴에 묻은 채 어느새 초로반백의 나이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돌아올 수 없는 조국, 새로운 세기와 더불어 한반도에도 해빙의 기운이 넘쳐나고 화해와 통일의 기운이 높아졌지만 이들에게는 오늘도 냉전과 분단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

공안당국은 말한다. 고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준법서약서, 반성문을 쓰라고! 군사정권에 맞서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벌인 것이 무슨 법을 위반했다 말인가? 온갖 차별에 맞서 민족주체성을 지켜내고, 민족의 통일을 위해 투쟁한 것이 어찌 반성할 일인가? <우리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귀국보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명예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바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길이기도 한 것이다.>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음습한 밀실에서 애국적 해외동포들과 민주인사를 반국가인사로 낙인찍고 간첩으로 조작한 부끄러운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부모의 임종도 가로막고, 유골이 되어 선산에 묻히는 것마저 허용하지 않은 반인륜적인 고국방문 금지를 일삼아 온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만이 해외에서 조국의 민주와 통일을 위하여 외롭게 노력해온 해외동포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리이자 도리이다.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 결성식에 참가한 우리는 정부당국에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해외민주인사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조건 없는 귀국을 즉각 보장하라!
1. 정부는 한민통한통련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을 철회하고 한통련의 명예를 회복하라!
1. 정부는 용공조작의 도구인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4

2003년 8월 7일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

해외민주인사 현황


연번	성명	영문	출생	직위	거주지
1	임민식	Lim Min Sik	1942	범민련 공동사무국 총장	Denmark Helsingor
2	양동민	Yang Dong Min	1937	범민련 일본지역본부 의장	일본 오사카
3	최철교	Choi Cheol Gyo	1931	범민련 일본지역본부 부의장	일본 지바
4	강종헌	Kang Jong Heon	1951	범민련 일본지역본부 부의장	일본 동경
5	황영치	Hwangyeong. Chi	1957	범민련 일본지역본부 사무국장	일본 지바
6	이정수	Lee Jeong Su	1964	범청학련 해외본부 공동의장	일본 동경
7	이영빈	Lee Yeong Bin	1926	범민련 유럽지역본부 자문위원	독일 프랑크푸르트
8	김순환	Kim Sun Hwan	1928	범민련 유럽지역본부 자문위원	독일 프랑크푸르트
9	안계일	An Gye Il	1931	범민련 유럽지역본부 중앙위원	독일 뮌헨
10	김성수	Kim Seong Su	1936	재독귀향촉진회 상임위원	독일 프랑크푸르트
11	신옥자	Shin Ok Ja	1941	범민련 유럽지역본부 중앙위원	독일 프랑크푸르트
12	이준식	Lee Jun Sik	1947	범민련 유럽지역본부 의장	독일 도르트문트
13	석명손	Seok Myeong Son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명예위원장	우즈베키스탄 타지켄트

연번	성명	영문	출생	직위	거주지
14	조윤혜	Cho Yun Hye		범민련독립국가협동체 지역본부 의장	우즈베키스탄 타지켄트
15	주영일	Chu Yeong Il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부위원장	우즈베키스탄 타지켄트
16	전순영	Chun Sun Yeong	1927	재캐나다코리안연합회 의장	캐나다 온타리오
17	정학필	Chung Hak Pil	1936	범민련캐나다지역본부 의장	캐나다 온타리오
18	양은식	Yang Eun Sik	1937	범민련재미본부 상임의장	미국 캘리포니아
19	유태영	Lyu Tae Yeong	1930	범민련재미본부 공동의장	미국 뉴욕
20	배강웅	Bae Gang Ung	1941	범민련재미본부 부의장	미국 캘리포니아
21	김영무	Kim, Yong-Mu			독일 쾰른
22	박대원	Park Tae-Wone			독일 쾰른
23	윤무근	Yoon, Mu-Gn		범민련유럽지역	독일 베를린
24	이수자	Yun, Su-Ja	1927	고 윤이상선생님 부인	독일 베를린
25	한계일	Han, Kei-Il			독일 뮌헨
26	박승옥	Park, Sung-Ok			독일
27	김형규	Kim, Hyung-Kyu			독일
28	양원차	Yang, Won-Cha		루르지방 우리문화연구소장	독일
29	안건옥	Ahn, Kun-Ok			독일
30	최기환	Choi, Ki-Hwan		한민련	스위스 제네바
31	정규명	Chung, Kyu-Myung		한민련	독일 프랑크푸르트

연번	성명	영문	출생	직위	거주지
32	이희세	Lee, Hi-Se		한민련	프랑스 모티냐
33	송두울	Song, Du-Yul	1944	민주사회건설협의회	독일 베를린
34	한영태	Han, Young-Tai		노동교실	독일 베를린
35	윤운섭	Yoon, Woon-Sup		노동교실	독일 베를린
36	이준구	Yi, Jun-Goo			독일
37	김대천	Kim, Tae-Chun		범민련유럽지역	독일 보쿰
38	장일중	Chang, Il-Joong		재독동포협력회	독일 베를린
39	하양희	Ha, Yang-Hee		범민련유럽지역	독일 베를린
40	이한경	Lee, Han-Kyung		범민련유럽지역	독일 베를린
41	이영준	Rhee, Young-Joon		한민련	독일 베를린
42	김종한	Kim Chong-Han		베를린 세종학교 교장	독일 베를린
43	정경모	Chung Kyung Mo	1924	씨알의 힘사 대표	일본 요코하마
44	곽동의			한통련의장	일본
45	김정부		1949	한통련기획실장	일본 동경
46	손형근			한통련사무총장	일본
47	김창오		1955	한통련오사카본부 본부장	일본 오사카
48	박남인			한통련편집국장	일본
49	김영희			한민통국제차장	일본

연번	성명	영문	출생	직위	거주지
50	문세현			한청 중앙본부 부위원장	일본
51	서순자			한청 주안오사카	일본
52	최보			한청	일본
53	정승명			한청	일본
54	정육자			한청	일본
55	김양미			한청	일본
56	고수춘			한청	일본
57	강희문			한청	일본
58	이준희			한청	일본
59	윤강현			한청	일본
60	김경희			재일한국민주여성회 회장	일본
61	이종현			유럽민협의장	독일 뒤스부르크
62	김진향				독일
63	안석교			전 바이에른 아카데미 전자연구소 연구원	독일 뮌헨
64	이용			통일운동가	스웨덴

해외민주인사 관련기사 모음

 취재수첩

민족21 / 안영민 기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유감?

2003년 7월 3일 오후 서울 시청역 부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강당에서는 '해외 민주인사들의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워크숍'이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일본의 한통련 관계자들을 비롯해 독일의 송두울 교수, 미주지역의 범민련 관계자 등 아직까지도 정부에 의해 입국이 거부되고 있는 해외 민주인사들의 명예회복과 귀국보장 문제가 활발히 토론됐다.

행사 도중 한통련의 활동을 소개하는 비디오와 송두울 교수를 다룬 다큐멘터리 <경계도시>가 상영됐다. 그 비디오를 보면서 필자는 묘한 느낌이 들었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 그리고 광주민중을 학살하고 등장한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 시절,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피를 흘렸다. 그 시절 고문과 투옥, 수배는 이들의 일상이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는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두 차례의 문민정권을 거쳐 지난 대선 때에는 1987년 6월항쟁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노무현 씨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실로 민주주의와 개혁을 원했던 국민들의 투쟁의 성과인 것이다.

2001년 국회 의결을 거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란 기구도 만들어졌다. 과거 민주화운동 관련 인사들에게는 명예회복과 보상이 따랐다. 그들은 또한 시대의 변화에 힘입어 국회로, 청와대로, 정부로 들어갔다. 지난 시절 슬한 고난의 역사가 이렇듯 제자리를 잡아가는 듯도 하다.

그러나 그 자리에 마땅히 함께 있어야 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 국회로, 청와대로, 정부로 들어간 사람들이 과거 군사독재에 맞서 투쟁할 때, 그들의 열렬한 후원자가 되어 그 활동을 해외에 알려나가고 세계여론에 호소했던 사람들. 그들이,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설 자리는커녕 그들의 처지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그리운 고국산천을 찾는 일도, 보고 싶은 일가친척들과의 만남도 여전히 불가능하다. 다른 것도 아니고 수십 년간 가로막혀온 고국의 땅을 한번 밟아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마저도 거부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조국의 민주화동지들은 침묵할 뿐이다. 번듯하게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사업회를 만들어놓고도 기념은 우리들끼리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명예회복과 보상도 우리들끼리 나눠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워크숍 내내 필자는 답답한 심정이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에 대한 부정이 아닌가. 최소한의 의리도, 도덕도 부정하고 있는 것 아닌가. 김대중 정권의 실패도, 갈팡질팡하는 노무현 정권의 현실도 그 뿌리를 찾다보면 미흡한 역사바로세우기의 결과인 것이다. 다른 데서 찾을 필요도 없다. 수십 년간 반체제인사, 친북인사란 딱지가 붙은 채 살아야만 했던 해외 민주인사들의 명예회복을 뒷전에 두고, 그들의 고국방문을 온갖 구실을 붙여 가로막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역사에 대한 부정인 것이다. 이를 바로 세우지 않고 어떻게 개혁을 말할 수 있을까.

비디오 화면에 한통련 광동의 의장의 모습이 나타났다. 순간 필자는 2000년 9월, 한통련 취재를 위해 일본을 방문한 기억이 떠올랐다. 당시 광동의 의장은 필자에게 이렇게 토로했다.

“김대중 정부가 우릴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의리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003년 오늘 필자는 그의 말을 이렇게 바꾸어 말하고 싶다.

“조국의 민주화동지들이 이들을 아직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의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중의 소리 / 임은경 기자

참여 정부는 이번 광복절에 대규모 사면을 단행한다고 알려졌다. 참여 정부가 북핵 문제로 미군산 매파들에게 굴복하여 굴욕의 외교를 했다는 비판 속에도 그 범위가 미지수나 어쨌던 이번의 결단은 가히 기릴 만 하다.

신념에 의한 것이건 아니건 간에, 또 '색깔론'의 마녀사냥이나 남북교류협력의 현행 법과도 모순 충돌하는 국가보안법이라는 돈키호테의 시대착오적 머리 속에서나 운용될 법적용 등으로 감옥에 있거나 수배중인 자주 통일 인사들이나 노동운동가들, 그리고 상대적 생활고와 오도된 윤리현실로 해서 사회적 희생자가 된 수 많은 '범법자'들에게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여기 사면대상에서 커다란 한 부분이 외면당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수 많은 해외 민주인사들의 귀국조치가 불허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추된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바로 회복하여야 하고 다방면에서 분출 작동할 묶여 있는 에너지를 분출시켜야 한다. 국가적 손실이다.

다음은 '아직도' 빠리의 '망명객'인 이유진 선생이 간간히 보내온 글이다.

이 선생에 대해서는 이미 디지털말에 '파리 망명객 친구가 보낸 세 번째 타오른 트로카데로 광장의 촛불' 쪽지 글 '문화인!', '친일 문제에 대한 한 파리 친구의 답신', '지난 여름 이유진 선생 귀국 환영사' 등 많이 게재된바 최근의 글로는 현재 금강산 유람기가 올라있다. 그는 빠리 촛불 시위에서도 원로로서 많은 역할을 했다. 이 절절한 사연이 빠른 시일 내에 염원 하는 바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유진(李侑鎭)의 자기 소개다.

- 1939년 평양 태생

- 生於土歸於土의 자연법칙과 춘하추동의 아름다운 운행을 일찌감치 받아들이고, 또 요즘같은 천박한 세상에서는 "가난한 삶이 부귀공명보다 차라리 낫다!"는 확고한 깨달음으로 꽃나무와, 비싸지 않은 포도주와, 골루와즈 담배와 정다운 친구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開歲月하고 있는 빠리의 늙은 독서인.

그가 보낸 메일의 한 부분이다.

어제저녁에 친구내외와 종일토록 술 잔뜩 먹고 大醉 滿醉의 상태로 귀가했는데, 어

떻게 메트로를 타고 집에까지 왔는지 통 모르겠다.

지금도 대가리가 뻥뻥... 하하

네가 나의 '간략한 자기소개 글'을 보내달라기에 위와 같이 몇 자 적어 보낸다.

오늘 아침 빠리의 동포신문 '오니바'를 보니, 노무현 정부에서도 해외민주인사들에게 입국 불허라고...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안다고 그냥 안타깝다.

옛 살던 고향의 산이며 개울이며 길을 다시 한번 밟아보지 못하고...

눈에 삼삼한 부모형제들, 정다운 친구들 그 모두 못 보고 죽는가! 하면서 자다가도 비어져 나오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할, 지금은 파삭 늙어버린 노인들을 생각하면 가슴 답답 대가리가 땡하다.

짐승들도 늙으면 자조자조 제 태어난 산골 쪽을 향하여 킁킁 짖어댄다는데...

시조 한 수 - 어느 해외민주인사의 탄식

올해도 귀머거리 설레설레 '입국 불허'

참여정부가 선들 무엇이 나아지랴

차라리 '나라' 두 자를 깨끗하게 잇과자

오늘 내내 고장나 있던 컴퓨터가 저 혼자 고쳐졌다. 참 신기하다.

그래서 여기에 임은경 선생님한테 보낸 편지를 보낸다.

임은경 선생님,

재작년에 그러니까 26년 만에 서울을 다녀온 이후로 제 건강이 무척 좋아졌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몸도 좋아하지!" 했다는 어느 고승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 어느 날, 독일의 강형이 빠리에 놀러왔습니다. 17년 만의 해후였지요.

그는 저보다도 일찍 귀국이 허락되어 탈없이 서울을 다녀오곤 한다면 독일의 미 귀국 민주인사들의 최근소식을 들려주더군요.

"아무개는 그런대로 잘 지내고, 아무개는 부인이 죽고, 아무개는 반신불수가 되고, 아무개는 벌어오라는 돈은 안 벌고 남 좋은 민주화운동이나 쫓아다닌다고 이혼 당해 지금은 머리 뽕뽕 깎고 절간에 다니고 있고..."

"그런데 말이야, 얼마 전에 아무개를 만났는데 '혼자만 다녀오지 말고 우리도 좀 다녀오게 도와줘!' 하더라구. 그래 내가 얼굴이 뜨거워졌지 뭐야."

앞뒤 없는 고난 속에서 아직도 헤어지지 못하고 저렇듯이 실의에 차 있는 해외민주 인사들에게 '입국 불허'는 모진 형벌이 아닐까요? 나라사랑, 겨레사랑의 '죄'가 이다지도 무거운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멀쩡한 사람에게 그 무서운 암 선고나 진배없는 입국 불허!


역대의 군사정권, 민간정부가 어떻게 사무인계를 했길래 '참여정부'마저 나 몰라라! 하는 건가요?

옛날에는 그래도 "세월은 흘러서 일도 규명되어... 역적의 누명을 벗고 마침내 부모 형제 처자식이 기다리고 있는 고향집으로 돌아왔으니..." 따위의 신파조 대목이 보이던데...

남북간의 이산가족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이산가족도 살펴달라면 말도 안 되는 억지 부탁일까요? 차분한 어조가 못 되고, 이렇게 두서없는 횡설수설이 되었습니다. 이해와 관용을 바랍니다.

'어느 해외민주인사의 탄식'은 미 귀국 해외민주인사들의 하염없는 고통을 100분의 1도 그려내지 못한 졸작입니다. 그런대로 옛 친구들이 우글거리는 정다운 서울을 그분들이 기쁘게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다행일까 합니다. (이유진 드림)

* 임은경 선생은 빠리 촛불시위를 취재한 <민중의 소리> 기자이다.

 민주화운동 불구 '친북활동' 누명
'한통련', 꿈에도 가고픈 고국 산천
해외 민주인사를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하라

오마이뉴스 / 임종인 기자

1. 세 사람

•곽동의 - 1931년 경남 남해 출생, 71세. 18세 때인 1948년 생계가 어려워 일본에 감. 1950년 메이지대학 재학중 한국전쟁이 나자, 학도의용대로 국군입대 한국전쟁 참전 후 다시 독일, 재일한국거류민단(민단) 청년단장, 재일한국민주통일운동연합(한통련) 사무총장을 거쳐, 현 의장. 50년 동안 고국에 못 옴. 5년 전 부인 사별. 도쿄에서 혼자 살고 있음. 고향에 가보는 게 꿈임.

•신귀성 - 1952년 일본 고베 출생. 50세. 재일교포 3세. 20살 넘어 70년대 한통련 산하단체인 재일한국청년동맹(한청) 활동을 하면서 한국운동권노래를 부르며 한국말을 배워 우리보다 더 한국말도 잘함(한국노래도 매우 잘함. 한번도 와 보지 못한 '서울서울' 노래를 조용필씨 뺨치게 잘 부름). 전 한통련 대외협력국장. 25년간 한청 및 한통련 활동. 아들과 딸이 한국이름을 사용하여 도쿄 일본학교에서 이지메를 당하고, 한통련 활동비가 적어 생계가 힘들어 5년 전 한통련 활동을 접고, 처가가 있는 나라현의 시골에 가, 가구 공장 노동자생활. 아이들은 시골에서는 잘 적응해 간호대 등 진학. 말로만 듣는 서울의 발전상을 보는 게 꿈임.

•김창오 - 1955년생. 일본 오사카에서 출생. 47세. 재일동포 2세. 한국말 20살 넘어 배움. 한청의장을 하던 1987년 6월항쟁 때 오사카 한국영사관 앞에서 전두환정권 반대, 호헌철폐, 직선제개헌 주장하다 일본경찰에게 구속당함. 죄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1달 후 석방. 한국민주화운동으로 일본에서 재일교포로 구속된 유일한 사람. 현재 한통련 오사카지부 사무국장. 장인이 공장 운영하여 생활비 지원이 있어 생활이 곤궁하지는 않음. 아버지 고향 근처인 경주 불국사, 석굴암 등 신라 유적지에 가보는 게 꿈임.

2. 민변의 해외민주인사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초청 제안

지난 2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에 맞추어 한국 사회의 인권현황 전반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요청하는 인권정책 전반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이 제안서의 대부분은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실천하여야 할 인권정책이다. 그런데 이 중 가장 빨리 하였으면 하고 제안한 것이 일본의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의 광동의 의장, 독일의 송두울 교수, 정규명 물리학박사, 윤운섭 선생, 프랑스의 이희세 선생 등 해외 민주인사 50여 명의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이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하여 70년대부터 수십 년간 외국에서 헌신하며 고생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7,80년대 민주화의 상징이었던 김대중씨가 대통령이 된 것을 국내의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한국 민주화의 큰 진전(한홍구 교수는 태조 이성계의 집권 이후 600년만의 세력교체로 보았다)으로 보았다.

김대중 정부는 민주적 대통령답게 국내에서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에게는 민주화 운동관련 명예회복과 보상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이 분들을 예우하였고, 지난 5년간 많은 분들이 중요한 공직을 맡았다. 국회의원도 민주화 운동한 사람이 7,80명이나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정의가 살아 있는 나라가 되어가는 것 같다.

그러나 수십 년간 해외에서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 온 사람들은 명예회복과 보상이 되지 않았고,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우리나라에 오지도 못하였다. 일본의 재일교포를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욕하며 한국의 독재정권과 친했던 재일본조선거류민단(민단) 간부들이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한통련 등이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 민주화운동을 한 것은 맞지만, 198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을 방문하는 등 '친북 활동'(국내 민주화 운동도 80년대 후반부터는 통일운동을 하게 되었음은 잘 알려진 일이다. 문익환 목사나 임수경씨의 방북)을 주도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친북활동'을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지난 5년간 북한의 김용순 위원장을 비롯한 수많은 북한 사람, 일본의 재일조선인총연합(조총련)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이도 민족 화해와 통일을 위하여 잘 된 일이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친북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에게 한국에 오기 위하여 김대중 정부는 반성문을 쓰거나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 남한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해외에서 민주화운동한 사람에게 는 하지도 않은 '친북활동'을 하였다고 몰아붙이며 자기 고향에 오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이 분들은 독재정권하에서 몇 십 년간 고향에 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다. 김구 선생이 일제로부터 해방되기까지는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올 수 없었던 것처럼. 이 해외 민주화운동세력에게 이렇게 차갑게 대한 것은 남북문제는 비교적 잘 하였다고 평가받는 김대중 정부의 큰 오점이다.

그러면 국내 민주화운동의 큰 결실이라 할 수 있는 1987년 6월 항쟁세력의 집권이 라고 하는 노무현 정권(유시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는 민주화운동의 동지인 해외에서 민주화운동한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 시금석이 이들의 225 취임식 참석 여부다.

3. 한통련의 한국 민주화운동

일본의 한통련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한통련 활동가 중 대표적인 사람이 광동의 의장(72), 김정부 기획실장(54), 손영근 사무총장(51), 신귀성 전 대외협력국장(50), 김창오 한통련 오사카 사무국장(47)이다.

일본의 재일교포는 약 60만 명인데, 그 97~8%는 지리적인 이유로 남한쪽 출신이다(만주의 조선족은 대부분 북한쪽 출신이듯이). 또 경상도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민단(남한 지지)이나 조총련(북한지지)이나 마찬가지다. 1945년 해방 이후 65년의 한일협정까지는 조총련에 속한 사람이 민단에 속한 사람보다 더 많았다.

1965년을 기점으로 민단의 숫자가 늘어 현재는 민단에 속한 사람이 더 많다. 민단에 속한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당연히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외국이나 한국을 다닌다. 한통련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여권을 내주지 않아 일본에 살면서도 한국은 물론 유럽이나 미국 등 외국에 자유롭게 나갈 수 없다.

민단 상층부는 이승만, 박정희정부 때 언제나 독재정권 편을 들었다. 민단의 독재정권 지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민단간부들이 1973년 8월 15일에 만든 단체가 한통련의 전신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회의(한민통)이다. 1972년 10월 박정희의 유신쿠데타 당시 일본에 머물고 있던 김대중은 귀국을 포기하고 일본과 미국에서 동포들을 규합하여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김대중은 일본에서 한국의 민주화를 염원하는 동포들(이 사람들이 현재 친북인이라고 해서 김대중정부가 국내방문을 못하게 한 사람들이다)과 함께 한민통을 결성하였고, 초대 의장으로 내정되었다. 해외에서 김대중을 중심으로 반박정희 세력이 결집되는 데 당황한 중앙정보부는 한민통의 결성식을 1주일 앞둔 1973년 8월 8일 김대중을 도쿄에서 서울로 납치했다. 김대중이 납치되자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고, 국제사회에 알리고, 그 후 김대중구출투쟁을 한 사람들이 바로 한통련의 민주인사들이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정사는 정작 한민통 회원도 아니었고, 한민통의 간부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다. 더구나 간첩죄로 10년형을 받은 김정사가 6개월 만에 일본으로 돌아와 활보하고 다녔다. 이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한민통의 초대 의장인 김

대중을 옹호하고, 해외에서 진행되는 유신독재 타도투쟁을 말살하기 위한 자작극이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민통(한통련)은 반국가단체고, 그 회원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 되어 있다.

이후 1980년 5월 광주학살을 저지르며 등장한 전두환 등 신군부는 김대중을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하였고, 김대중이 1973년 한통련의장직을 수락한 것을 '반국가단체의 수괴'였다고 몰아 사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한민통은 김대중 구출운동에 힘을 모았다. 한민통은 즉각 계엄사령부가 조작한 '김대중 일파에 대한 중간수사 발표문'의 허위성을 폭로하였다. 한민통의 이러한 활동은 정의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세계의 광범한 인사들의 의분을 불러일으켜 김대중 구출을 위한 운동단체들이 일본의 주요 도시는 물론이고 범세계적으로 결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민통 상임고문 배동호 등은 여권도 없이 일본 법무성의 재입국 허가증만으로 1980년 6월 해외로 달려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사회주의 인터내셔널(SI) 간사회에 참가하여 한국민주주의와 김대중이 처한 상황을 널리 알렸다. 독일통일의 주춧돌을 놓은 빌리 브란트 서독 사민당 당수가 의장으로 있던 이 모임은 이후 김대중의 구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한민통의 창립을 준비했던 70여 명의 발기인은 전원 민단의 단원들이며 조총련 동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김대중을 대신하여 한민통 의장대행을 맡은 김재화는 민단 단장을 8번이나 지냈으며 71년 한국의 8대 국회의원이기도 했다. 그 뒤를 이어 한민통 의장이 된 배동호, 광동의 모두 민단의 핵심간부 출신이었다.

1973년 한민통결성 이후 주요 활동을 보면, 70년대는 김대중 구출투쟁과 한국내 정치범 석방운동, 서승, 서준식 등 100여 명에 이르는 재일한국인 유학생 정치범 석방운동, 독재정권 퇴진운동, 일본에서 전태일 영화 제작 상영 등이었다. 80년대 주요사업은 광주학살 규탄, 광주비디오 제작 상영, 김대중 사형저지, 1983년 김영삼 단식 동조 단식, 6월항쟁 때 일본에서 민주화 시위 등 독재정권 타도운동 등이다. 90년대 들어서는 민족통일운동, 강경대 열사 추모 등 살인정권 규탄대회, 반전 반핵 평화운동 등이다.

4. 그들의 소박한 꿈을 이루어주자

한통련은 민단이나 조총련만큼 큰 단체도 아니다. 한통련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이나 한국에서의 공식 참여가 아니다. 단지 꿈에도 그리던 고국에 돌아가 고향땅을 밟아보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을 따름이다. (어려서 고국을 떠나 6,70대가 된 재일동포 1세는 50년 이상 고국에 못 와 봤고, 일본에서 태어나 4,50대가 된 재일동포 2,3세는 한국에 한 번도 못 와 본 사람들이다). 그리고 세계화시대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여권을 받아 다른 나라에 자유롭게 여행하는 것이다.

과연 이 정도의 소박한 꿈도 우리가 이루어줄 수 없는 것일까? 새로 시작하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이 꿈이 이루어지길 촉구한다. 그런데 2·25 취임식이 내일 모레인데 이분들이 취임식에 참석한다는 소식이 아직 없다. 우리나라에서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많은 선후배들과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당부드린다. 우리가 군사정권에 맞서 힘들어 할 때 일본에서 힘겹게 살면서도 온갖 차별에 맞서 민족주체성을 지키면서 우리와 함께 한 분들을 우리가 더 이상 무시하고 냉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 한통련 홈페이지 : www.korea-htr.com

- e-mail : chuo@korea-htr

- 주소 : 東京都千代田區神田小川町3-6-8 伸幸 Bldg.5f

- 전화 : 81-3-3292-0671 / 팩스 81-3-3295-5004

* 임종인 기자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법무법인 해마루 법률사무소의 대표이다.

📌 “목표? 그야 자주 민주 평화 통일이지.”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도쿄본부 결성대회를 다녀와서

오마이뉴스 / 박철현 기자

한 달 반 동안이나 지겹게 쏟아지던 빗줄기가 말끔하게 갠 지난 27일, 동경 중앙대학 스루가다이 기념관에서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이하 한통련)' 도쿄본부 결성대회가 성대하게 열렸다.

오오사카, 사이타마, 치바를 비롯하여 일본 전국 각지에서 모인, 연세 지긋한 전사(戰士)들은 한통련 광동의 의장과 양병용 도쿄본부 위원장의 연설을 들으면서 과거를 회상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고, 또 앞으로의 투쟁을 생각하면서 결연한 의지를 불태웠다.

얼마전 MBC 방송국의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국민들에게 본격적으로 소개되었지만, 여전히 국내 언론의 차디찬 외면을 받고 있는 재일 베틀콩 한통련.

국내에서는 과거 독재세력에 맞서 싸운 민주화 인사들의 보상문제나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등이 여론의 관심을 끌고 있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통련의 이마에는 여전히 '반국가단체'라는 냉전시대의 바코드(Bar code)가 찍혀 있다.

대표적인 '국내'의 반국가단체(?) 한통련에 대해서는 '수배 해제'라는 획기적인 조치가 내려졌지만, 이것 역시 '국외'의 반국가단체 한통련에게는 아직 먼 이야기에 불과하다.

30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반유산·반독재·민주화, 그리고 반으로 갈라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온 몸을 바쳐 투쟁해 왔으며, 작년과 올해에는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은 '효순·미선이 촛불시위'를 주도적으로 조직해 낸 그들이 다시 도쿄본부 결성대회를 계기로 한자리에 모였다.

한통련 도쿄본부는 반미반전평화운동,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의 관철이라는 두 가지 큰 목적에서 그동안 중앙본부가 모든 사업을 도맡아서 해온 관동지방(일본은 크게 관서지방과 관동지방으로 나뉠 수 있다. 관서지방이 오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서쪽 지역이라면, 관동지방은 동경과 그 주위의 6개현을 포함한 동쪽 지역을 일컫는 말이다)의 사업들을 보다 전문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 설립한 한통련의 하부조직이다.

이라크 침략에서 확실하게 밝혀진 미국의 팽창주의 정책과, 북일 수교를 위한 역사

적인 '김정일-고이즈미 평양선언'을 '납치문제'로 치환시켜 버린 일본의 우경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일본 내의 진보적인 시민단체, 노동조합들과 연계하여 6·15 남북공동선언의 관철을 재확인한 이 자리에서 한통련 광동의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을 열었다.

“한통련의 목표? 일차적으로는 명예회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통련의 명예회복을 넘어서 '진정한 조국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얼마나 침략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일부러 긴장관계를 유지하려고 일본과 남쪽(한국)을 자기네들의 이익에 맞게 요리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핵문제를 걸고넘어지면서 선제 북폭격, 경제봉쇄론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끊임없이 남북이 갈라진 채로 가는 게 가장 자기네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침략'은 미국의 기본 전략입니다. 1876년 '조일수호조규(韓日修好條規)'에서 1882년 '조미수호조약(朝美修好條約)', 1905년의 '태프트-가쓰라각서(Taft-桂太郎覺書)'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겉으로는 조선반도를 위하는 듯한 행세를 하면서 결국엔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를 허락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인데, 한 나라의 주권을 다른 나라에게 이양하도록 허락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미국이 우리나라, 조선 반도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들뿐입니다.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 통일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이 아닌, 일본이 아닌, 우리 동족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처음 한통련을 결성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민족의 수난을 받아들이고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선구자의 역할을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 그리고 우리 자손들이 평화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74세의 노구에, 최근에는 건강마저 많이 악화돼 주름진 얼굴의 광동의 의장. 그러나 준비된 마이크마저 거부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생각해 온 한통련의 나아갈 바를, 원고도 없이 가슴으로부터 절절히 외치는 모습에 참석자들은 큰 감동을 받은 듯 했다. 어떤 이는 열심히 필기를 하고, 어떤 이는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귀를 기울이고.

열화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연단에서 물러난 그의 뒤를 도쿄본부 위원장으로 추대된 양병용 위원장이 물려받았다. 자그마한 체구, 백발을 희끗희끗 날리면서도 눈빛만은 20대 젊은이 못지않게 살아 있다. 아니, 오히려 요즘의 20대 젊은이들보다 더 깊고 순수하며, 정열적인 눈빛이다.

그는 반미반전평화운동과 한통련의 역사적 의의, 그리고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도

교본부를 결성하게 된 소회와 앞으로 도쿄본부가 어떤 일을 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했다.

“관서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국과 민족에 대해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관동지방의 재일동포들을 많이 만나고, 그들에게 민족적 소양을 심어주는 사업을 중요시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정기적인 월례회의 개최는 물론 한청도쿄본부, 민주여성회, 학생협등이 참가하는 도쿄본부집행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특히 8월달에는 여러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8·15 해방 58주년 기념 도쿄대회, 그리고 벌써 10회째를 맞이하는 제10차 통일마당도쿄를 주최합니다. 물론 저희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 조선반도의 통일을 바라고 있는 진보적인 시민단체와 공기업 노동조합들의 참가도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조선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바라는 많은 분들의 염원이 쌓이고 쌓여 언젠가는 우리들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 모두 전력을 다합시다.”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양병용 위원장의 인사말을 끝으로 약 1시간 20분에 걸친 한통련 도쿄본부 결성대회 1부가 끝이 났다. 2부는 참석자 전원이 자리를 옮겨 결속력을 다지는 간단한 다과 및 연회를 가졌는데, 그곳에서 양병용 위원장과 단독 인터뷰를 할 기회가 생겼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 한통련 결성 3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도쿄본부가 결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한통련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업들이 좀더 본격적으로 확장되고 집중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도쿄본부 결성의 구체적인 의미, 그리고 사업들은 무엇인가요?

“일본의 수도이기도 한 동경지역은 재일동포들이 일본 땅에서 5번째로 많이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나 교포들도 많이 자리를 잡았고요. 그런데 그동안 한통련 중앙 본부에서 이 많은 인원들의 복지나 활동들을 다 신경 써 왔습니다. 원래는 지역조직이 해야할 일인데 말이죠.

도쿄가 정치적으로도 가장 격렬한 곳이고, 생활이나 교육같은 면에서도 차별을 많이 받아왔고요. 이런 것들과 더불어 재일동포 3, 4세의 민족의식 고취의 문제까지 할 일이 너무 많은 것이죠. 사실 민단이라는 조직이 있기는 합니다만, 민단 자녀의 90%가 다 일본인 학교에 다닙니다. 민단은 민족의식 문제에 관해서는 거의 손놓은 것이죠. 이런 것들을 그간 중앙본부에서 다 해왔는데, 이제부터는 우리 도쿄본부에서 맡아서 할 예정입니다.”

• 지금 한통련의 일차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역시 명예회복에 관련한 것일 텐데요. 한통련의 명예회복과 관련하여 한국 내에서, 같이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는지요?

“네. 한국의 민주화 세력들과 연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국 쪽의 ‘한통련 명예회복 대책 위원회’에 많은 시민단체들이 결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표적인 단체라면 ‘민변’, 그리고 너무 길어서(웃음) 정확히는 명칭이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양심수 석방을 위한 전국회의’인가 하는 양심수 관련 단체, 그리고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대학교수님들이 저희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틀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의 지금 현재 목표는 한통련의 명예회복이 아니라 조국의 민주적 평화적 통일입니다.”

• 네. 그건 다음 질문인데요. 명예회복이 일차적인 목표고 궁극적인 목표인 ‘통일’에 관해서 질문드리려고 했습니다(웃음). 지금 한통련에서 주장하고 있는 통일의 형태는 외세의 개입을 배제한 조국의 자주민주평화 통일이 아닌가 합니다. 자주민주, 그리고 평화적 통일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성격이 급해서(웃음). 그렇습니다. 통일에 대한 한통련의 입장은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본질적인 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7·4 공동회담, 가깝게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실천입니다. 형식적인 실천이 아닌 실제적인 실천 말입니다.

그 두 선언의 기반에 깔려 있는 세 가지 큰 원칙 즉 평화, 자주, 민족대단결에 기반하여,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한 연합체 형식만이 진정한 통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일본등 주변국의 간섭에 의해 통일되는 것은 과거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한국이 정정당당하게 북한과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처럼 남북간의 철도연결이나 금강산 관광같은 민간에서의 노력은 물론, 장관급 회담에서 결정난 이산가족 상봉의 계획 등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결국 우리의 자주적인 민족통일에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 지금 북한 핵문제를 둘러싸고, 북미단독회담이나, 다자간 회담이나 하는 등등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일본의 우파정치인들은 평양선언폐기는 물론, 유사법안을 개정, 북한의 만경봉호 입항을 금지하는 등 급속하게 우경화 선언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 한국도 역시 미국의 눈치

를 살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북한 핵문제가 어떻게 풀려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평화적 해결입니다.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행위는 한반도의 긴장관계를 영원히 가져가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선불리 다른 나라들의 회담 개입을 찬성하는 것은 더욱더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저는 반일주의자입니다. 일본의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정을 끊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솔직히 일본이나 한국은 미국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회담에 개입 안해도 됩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북한 역시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앞서 말할 것처럼 민간 교류와 정부차원의 교류는 미국의 눈치를 봐야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계속 교류를 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반면 중국이나 러시아는 다들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 개입하려는 것입니다. 그거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북한과 미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북미회담과 관계없이 같은 민족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정정당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도 뒤로 했다는 것 때문에 욕먹었다면, 이번의 노무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정정당당히 했으면 합니다. 같은 민족끼리 서로 돕고 통일을 위해 잘 협력하자는데 미국이라도 함부로 끼어들어 태클을 걸기는 힘들지요.”

인터뷰가 막 물이 오를 시점에 안에서 양병용 위원장을 급히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전국에서 모인 노선배들이 벌써 몇 십분 동안 양병용 위원장을 찾고 있었다고 한다. 곤란해 하는 그에게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질문을 했다.

• 뜬금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한 마디만 해 주십시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자신의 상징이었던 원칙과 상식을 지키고, 그것에 기반하여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도 있고, 잘못하고 계신 것도 있습니다만, 하나만 잃지 않으시면 됩니다.

민중들의 희망이 무엇인지, 민중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면서 그들의 바람에 어긋나지 않은 대통령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하는 마지막 한마디에서 한통련의 '명예회복'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총총히 연회장 안으로 사라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시절부터 끊임없이 한통련의 명예회복을 기대해 왔지만, 이루어 지지 못했던 그 아픔을 여러 곳으로부터 듣고 느껴 왔던 기자로서는 그의 그 마지막 한마디 “원칙과 상식을 지키고, 자주적인 평화적인 통일”이 오히려 더 절절하게 다가온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 박정희가 그의 정적인 DJ를 제거하기 위해, 한통련 의장직 취임 예정이었던 DJ를 납치하고 한통련을 '반국가 단체'로 몰았던 것이 무려 30년 전의 일이다.

그렇다. 당시 박정희는 자신의 최대 정적이며 군사정권의 걸림돌이었던 민주인사 DJ의 복권을 추진하고 한국의 진정한 민주화와 자주적 통일을 외친, 한통련 멤버들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그들에게 반국가 단체라는 선고를 내렸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일본 땅에서 줄기차게 70~80년대 반독재·민주화 활동을 전개해 온 그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됨과 동시에 환호성을 내질렀다.

드디어 고국땅을 밟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들뜬 기대감. 그러나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지지 기반의 한계 및 최초의 진정한 민주주의 정권, 그리고 당시 IMF 사태 등 경제적으로 워낙에 어려운 때였는지라 미처 한통련의 복권 문제까지는 건드리지 못했다.

재임 말년에 조금 한통련 복권의 움직임이 일어났었지만, 레임덕과 아들들 비리문제까지 겹쳐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었던 지라, 그 움직임은 더 이상 수면위로 떠오르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받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게다가 한총련 수배해제라는 소식을 들은 직후라 한통련 복권에 대해 한마디 부탁이라도 할 법한데, “원칙과 상식에 따라 민중들의 기대를 배반하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연회장으로 총총히 발걸음을 옮기는 양 위원장의 뒷모습.

아직 우리에게 남은 일은 너무나 많다. 한통련 도쿄본부 결성대회는 웃는 얼굴로, 발그레한 미소로 끝이 났지만, 그들의 가슴속에 사무쳐 있는 한(恨)은 누가 풀어줄 것인가? 이제 살날도 얼마 남지 않은 노전사(老戰士)들의 주름살이 말끔하게 필 날은 언제인가?

취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말끔하게 갠 동경하늘이 청명하게 빛난다. 비 개인 늦저녁의 풍요로움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원한다.

※ 박철현 기자 tetsu@ohmynews.com

📌 “민주화와 통일 여정에 바친 청춘,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망명객’”

유럽동포운동의 뿌리와 역사를 찾아서 I

월간 『말』 / 안영민 기자

지난 10월호 제일 한통련 취재에 이어 월간 『말』은 11월 20일부터 유럽지역 동포운동의 뿌리와 역사를 찾아 19박20일 동안 유럽 현지취재에 나섰다. 1960년대에 유럽으로 유학을 떠난 학생들과 ‘경제중흥의 임무’를 띠고 비행기를 탄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 유럽인들의 차별정책에 맞서는 과정에서 이들은 민주적 권리에 눈떴고, 때마침 유신이 선포되면서 광포한 독재정치가 극에 달하자 기꺼이 조국민주화의 깃발을 유럽에서 올렸다. 이 와중에 ‘정치망명’의 길을 선택해야만 했던 이들은 30~40년의 망향가를 가슴에 묻은 채 어느 새 초로반백의 나이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돌아올 수 없는 조국, 새로운 세기와 더불어 한반도에도 해빙의 물결이 넘쳐나고 화해와 통일의 기운이 높아졌지만, 이들에게는 오늘도 냉전과 분단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

독일의 베를린에서 프랑크푸르트로, 쾰른과 뒤스부르크, 보훔으로, 프랑스의 파리로, 스위스의 제네바로, 다시 독일의 뮌헨과 베를린으로... 기나긴 여정은 덴마크 코펜하겐을 거쳐 스웨덴 스톡홀름에 이르러서야 끝이 났다. 총 19박20일, 유럽 내 이동거리만도 6천여km.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나선 유럽기행. 그들은 월간 『말』 취재진의 뜻밖의 방문에 한편으로는 놀라면서도 뜨겁게 맞아주었다.

군사정권의 광풍이 몰아치던 1970~80년대 시절, 폭정에 짓밟히던 조국의 동포들을 대신해 군사정권의 만행을 세계에 알려 국제여론을 움직였고, 구속·수배·의문사당한 조국의 동지들을 위해 아낌없이 연대하고 지원했던 사람들. 그러나 30~40년 세월 속에 남은 것은 ‘망명객’ 처지일 뿐이다. 그동안 두 차례나 민간정부가 들어서고 세기도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금기의 선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 돌아갈 수 없는 조국을 향한 그리움이 잊혀질 날 있었으랴. 그러나 그들은 말한다. 단지 “정당하게 평가받고 싶다”고. ‘반체제인사’ ‘친북인사’ 심지어 ‘북한공작원’이란 낙인마저 감수하며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이역만리에서 모든 것을 바친 자신들의 활동이 “조국의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길 바랄 뿐”이라고...

“중앙정보부는 8일, 주로 과거 구라파에서 유학한 바 있는 현역 대학교수와 현재 유학중인 한국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무려 1백 94명이 관련된 대규모 간첩사건을 적발, 이를 수사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대남적화공작단사건’ 제1차 진상발표문에 따르면 이들이

1958년 9월부터 1967년 5월 사이에 동독주재 북괴대사관을 왕래하면서 접선, 간첩활동을 해왔으며... (후략)”(1967년 7월 8일 『동아일보』기사)

그것은 마른하늘에 날벼락과도 같았다. 마치 첩보작전이라도 감행하듯 박정희 군사정권은 중앙정보부 요원들을 독일로 급파, 독일정부도 모르는 사이에 이들을 유인, 납치해 서울로 압송했다. 음악가 윤이상 선생 부부와 화가 이응로 선생 부부, 그리고 프랑크푸르트대학 이론물리학 연구원 정규명 박사 부부 등 독일사회에서도 널리 알려진 예술가, 학자 16명이 행방불명됐다. 며칠 뒤 서울에서 간첩으로 세상사람들 앞에 나타난 것이다.

우선 독일언론이 발칵 뒤집혀졌다. “한국의 정보원들이 독일에 와서 정권비판적인 한국인들을 납치해갔다”는 기사가 독일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동백림 간첩단사건.’ 그러나 박 정권은 연행해온 이들이 동베를린(동백림) 주재 북한대사관을 드나들면서 간첩행위를 해 왔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끝내 이들에게 사형, 무기 등의 중형을 선고 했다.

동백림 사건

이 사건은 1965년 한일협정 반대시위 후 확산되는 반정부투쟁을 잠재우고, 3선개헌으로 가는 길목에서 정적들을 옹아매기 위한 방편이었다. 해외에서 거의 무방비상태로 있던 관련자들에게 덧씌워진 ‘간첩’ 혐의는 특히 국내 반정부세력에 대한 ‘위력시위’로는 효과만점이었다. ‘동백림 사건’을 필두로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통일혁명당 사건’ 등이 줄줄이 이어졌고, 정국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경색돼갔다.

‘동백림 사건’의 핵심요지는 사건 관련자들이 동독의 북한대사관을 드나들면서 간첩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앙정보부의 이러한 발표내용은 진실인가. 1950년대 후반부터 하나둘씩 생겨난 유럽의 한국유학생들은 1960년대 중반부터 그 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이중 서베를린에서 공부하던 학생들의 경우 당시 서독주민들이 큰 제약 없이 동베를린을 드나드는 것을 보면서 호기심에 동베를린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또 일부는 같은 민족이란 ‘감상적’ 생각에 동베를린의 북한대사관을 방문해 직원들과 식사를 하거나 통일을 주제로 토론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두고 ‘간첩 행위’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침소봉대였다. 동독과 자유롭게 관계를 맺고 나아가 이념적으로도 접촉할 수 있는 자유까지 보장된 서독에서 유학생생활 하던 그들이었기에 별다른 판단 없이 북한사람들을 만난 것, 이것이 실상의 전부였던 것이다.

‘동백림 사건’은 한국과 서독정부 사이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서독정부는 자국 내에서의 강제연행을 명백한 주권침해로 규정했고, ‘납치’해간 16명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국교를 단절하겠다는 최후통첩까지 하고 나섰다. 당시 외무장관 셸이 이러한 서독정부의

방침을 가지고 서울을 방문해 한국정부에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결국 한국정부는 사건 발생 1년여가 지난 1969년, 사건 관련자들을 '추방' 형식으로 서독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 후과를 톡톡히 치러야만 했다. 서독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한국 정부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나빠진 데다가 사건 당시 서독 대사로 있으면서 '동백림 사건'에 대해 본국에 항의했던 최덕신씨가 이 과정에서 결국 망명해 정권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역설적이게도 유럽동포운동의 씨앗은 박정희 정권에 의해 뿌려졌다고 할 수 있다. 실체조차 불분명했던 '동백림 사건'을 겪은 뒤 독일의 유학생과 교포들은 박정희정권 반대투쟁을 본격화했고, 1974년 3월 1일 유신독재 반대와 민주주의 회복을 내걸고 민주사회건설협의회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바로 '동백림 사건' 관계자들이었다.

'경제중흥' 임무 안고 떠난 광부와 간호사

유럽동포운동의 역사와 뿌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유럽동포사회 구성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일제시대 살 길을 찾아 현해탄을 건넜다가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이 주축이 된 일본동포사회나 1965년 미국의 이민법 개정 후 대폭 늘어난 이민자들로 본격 형성된 미국동포사회와 달리 유럽지역은 나라마다 이민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었기에 동포사회가 존재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유학생들이 독일, 프랑스 등지에서 하나둘씩 늘어났지만 그 수는 1960년대 초반까지 1백 명도 채 되지 않았다. 동포들의 유럽 이주가 본격화된 것은 1960년대 중반부터다. 제3공화국 당시 소위 '근대화 공업정책'을 추진하면서 인력수출이 외화획득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특히 서독지역에 광부, 간호사 노동자들의 파견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호위 아래 1950~70년대 '라인강의 기적'(이 기적에는 물론 '한국전쟁에 따른 호황'도 일익을 담당했다)이라 불릴 만큼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룬 서독은 이 과정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가스트 아르바이터'(외래노동자)란 이름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거 수입하기 시작했다. 서독은 1963년 한국정부와도 특별고용계약을 맺고 그해부터 광부 노동자를 수입했고, 1966년부터는 간호사 노동자도 받아들였는데 그 수는 1970년대 초반 3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박 정권 초창기 한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었다. 원조와 차관에만 의존한 채 자립적인 경제기반을 닦아나가는 것에 소홀하다 보니 실업률만도 30%에 달했다. 박 정권은 이 문제의 해결을 '인력수출'을 통해 찾았다. 당시 '한국인력수출공사'와 서독 '루르지방탄광업협회'의 계약에 따라 파독된 광부들의 70% 이상이 고졸자였고, 30%가 대졸 혹은 대학 중퇴자였다. 그중에는 국회의원, 변호사, 교사 출신 등도 포함돼 있었

다니 그만큼 실업문제가 심각했음을 드러내준다 하겠다.

독일노동자를 대신해 라인강 인근 루르 지방 일대 탄광지대의 지하 1천2백m 막장에 투입된 이들은 원래 광부출신이 아니었다. 생전 처음 하는 고된 채탄작업이 손에 익을 리 만무했을 테니 자연 재해와 사고(심지어 작업 도중 사망하는 경우도 허다했다)에 시달려야만 했다. 하지만 한국영사관은 오히려 재해를 당한 노동자를 속히 한국으로 이송하는 데에만 신경 쓸 뿐, 이들의 인권보호와 권익옹호에는 관심조차 없었다. 특히 동백림 사건 후 한국정보기관의 감시가 일상화되면서 노동자들은 더욱 위축됐다. 중앙정보부는 광부들 내에 정보요원을 침투시켜 이들을 끊임없이 감시했고, 노동자들의 합숙소에 상주하는 일도 허다했다. 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 싶으면 노동자들을 즉시 한국으로 돌려보냈다. 광부노동자들의 주장대로 '한국정부는 늘 독일정부와 기업주 편'이었던 것이다.

간호사들의 근로환경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에서 정식 간호대학이나 전문학교를 마치고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이들이 독일에 도착했을 때, 주어진 일은 병원 허드렛일이었다. 독일은 의학수준도 높고 보수도 많다는 말만 듣고 기대를 잔뜩 안고 왔는데, 하루 3교대로 침대시트와 환자복을 빨고 병실, 화장실 청소와 덩치 큰 독일환자 수발 등 온갖 굵은 일만 도맡았던 것이다. 정부가 독일의 간호사와 미국식 교육을 받은 한국의 간호사간의 역할 차이—당시 독일의 간호사는 주사를 놓거나 환자상태를 체크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일절 할 수 없는 단순 간호보조원으로 주로 교회 수녀들이나 봉사원들이 맡아왔기에 근로조건이나 보수가 최하층이었다—에 대한 명확한 인식 없이 무작정 사람만 보낸 결과였다.

특히 광부와 간호사들 중에는 독일로 나올 때 비행기 샅을 아끼기 위해 당시 한 해 수천 명씩 유럽 각국으로 '팔려'가던 입양아(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 총 10만 명 이상이 '팔려' 갔다고 한다)들의 인솔자 역할을 하던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입양아와 해외파견노동자. '외화획득'을 빌미로 군사정권에 의해 버려진 우리 민족의 슬픈 단면이 아닐 수 없다.

“동포여! 민주사회건설의 동지여! 사회구조의 모순과 국가의 위기를 철저히 인식하라! 민족의 굴욕적인 예속이 다시 오기 전에, 국민이 영구히 한 독재자의 노예로 되기 전에, 수수방관적 자세를 버리고 일어나서 이성과 양심을 거스른 독재의 무리들을 물리치자! 빼앗긴 국민주권과 짓밟힌 인권을 회복하여 민족의 이념인 민주사회를 창건하는 데 헌신하며 참여하자!” (1974년 3월 1일 발표된 「민주사회건설을 위한 선언서」 중)

1974년 3월 1일 독일의 수도 본 시의 중앙 베토벤광장. 3·1절 55주년을 기념해 독일 동포들 중 박정희 독재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독일의 사회단체 관계

자들도 함께 연대한 이날 집회에서는 55명이 대표로 서명한 선언서가 낭독되고, 본 시내 가두행진도 거행됐다. 독일사회 내에서 진행된 동포들의 최초 공개시위. 독일 내에서 본격적인 반유신·반독재민주화운동의 막을 연 이날 집회는 최초의 유럽동포운동 단체인 민주사회건설협의회(이하 민건회, 회장 정규명)의 출범을 알리는 행사이기도 했다.

당시 독일의 동포운동은 대략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첫째는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운동흐름이다. 1960년대 이후 유학 온 사람들 중에는 대학시절 4·19 혁명과 6·3 투쟁을 거치면서 학생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이들이 많았다. 이들은 독일 땅에서도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자체 토론모임을 통해 반독재민주화의식을 고양시켜나갔다. 유신체제 출범 후 이들은 박정희 정권을 더욱 강력하게 비판하기 시작했고, 독일사회 내 진보단체들과도 적극적인 연대를 모색했다.

둘째는 독일기업의 불합리한 처사에 반발하던 광부, 간호사 노동자들의 움직임이다. 당시 광부들의 경우 고된 막장일에 재해를 입어도 호소할 곳이 없었고, 하루 이틀만 결근해도 해고장이 날아오는 상황이었다. 간호사들 역시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이유로 병원측이 일방적으로 귀국을 요구하는 등 비인간적 처우문제가 심각했다. 게다가 1970년대 중반 이후 독일정부와 기업이 한인노동자들의 채용규모를 일방적으로 축소, 강제귀국 조치를 내리자 이에 맞선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었다.

셋째로는 광부, 간호사들과 적극 연대했던 한인교회의 활동을 들 수 있다. 당시 독일에 진출한 한인교회는 동포들의 사랑방 구실을 하였는데, 이중 진보적인 교회에서 한인노동자들의 권리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던 것이다.

독일사회 내의 차별대우에 맞서, 또 한국의 독재정치에 대한 분노감으로 행동했던 이들은 정보기관의 극심한 감시와 탄압에 시달려야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동포운동은 필연적으로 조직화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최초의 조직이 바로 민건회였던 것이다.

본격화되는 반독재민주화운동

민건회 출범은 유럽동포운동의 급속한 발전을 이끌어냈다. 독일의 '성공'은 즉시 다른 나라에도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프랑스와 스위스, 덴마크를 비롯한 북부유럽에서도 반독재민주화 요구가 거세게 일어났고, 민족문제연구소(프랑스, 소장 이희세), 민주사회건설협의회(스위스, 회장 최기환), 북구민족민주운동협의회(덴마크, 회장 임민식) 등이 속속 결성됐다. 독일 내에서도 1975년 광부 중심의 재독한인노동자연맹(노연, 위원장 이종현)이 결성되었고, 1976년에는 간호사들이 중심이 된 재독한인여성모임이 각 지역에서 꾸려졌다. 또 한인노동자들의 문제와 조국의 민주화운동에 적극 연대하고자

했던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1980년 조국통일해외기독교자회(기통회, 회장 이화선 목사)가 결성되기도 했다.

이로써 유럽동포운동은 노동자, 유학생, 종교인을 주축으로 지역과 계급·계층을 뛰어넘는 본격적인 연대운동으로 발전해 나갔다. 또 1977년 5월에는 일본의 한민통 및 미주지역의 동포운동단체와 연대해 민주민족통일해외한국인연합(한민련, 유럽본부 의장 윤이상)을 결성하는 등 해외동포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나갔다.

1970년대 유럽동포운동과 관련해 주목해볼 점은 당시 운동주체가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영역을 넘어서서 '변혁적 관점'을 뚜렷이 가져나갔다는 점이다. 68운동의 바람이 휩쓸고 간 뒤의 유럽 좌파운동에 영향을 받기도 한 이들은 모든 정보가 차단된 국내와는 달리, 외신을 통해 접하는 고국소식을 토대로 근본적인 사회변혁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여 나갔다. 당시 유럽동포운동 내에서 발간한 잡지 『주체』(발행인 정철제)—1974년부터 1978년까지 기간지 형태로 총 15호를 발행했는데, 제호 때문에 오해와 탄압을 많이 받았던 대표적인 진보매체다—의 내용을 보면 마르크스주의와 종속이론에 대한 소개, 반미자주화 문제와 연방제통일 문제 등 당시로서는 상당히 선진적이면서도 파격적인 내용이었다. 이러한 이론적 바탕과 내부의 치열한 토론은 때론 분열과 분파라는 부정적 효과도 낳았지만 유럽동포운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공헌했다.

또한 이들은 독일언론을 통해 1980년 5월 광주항쟁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분노 속에 술한 눈물을 흘렸고, 전두환 정권의 폭정에 얼어붙은 조국의 동지들을 대신해 유럽사회에 광주학살의 진상을 널리 알려나갔다. 이 과정에서 유럽동포운동은 유럽 각 나라 사회당을 비롯한 진보단체들과의 연대에도 힘을 쏟았는데, 특히 세계사회민주당(Socialist International)으로부터 국제 당대회 때마다 초청받는 등 유럽 진보세력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한편 유럽동포운동의 활약상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 있다. 바로 김대중씨 구명운동이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내란음모죄로 구속된 김대중씨에게 사형이 선고되자 먼저 들고일어난 것은 해외동포들이었다. 얼어붙은 정국 아래 한국의 지식인들과 운동가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 때, 이들은 각 나라 국민들에게 서명을 받고 술한 정당과 단체들을 찾아다니며 김대중씨의 석방을 호소했다.

“김대중을 구출하라”

그 과정은 참으로 눈물겨운 것이었다. 외국정당의 행사가 있는 날에는 윤이상, 정규명, 최기환, 이희세씨 등 유럽동포운동의 지도자들이 직접 행사장 로비와 숙소 호텔입구에서 관계자를 붙들고 호소하는 일이 허다했다. 특히 유엔인권위원회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매일같이 '김대중 석방'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 결과 각 나라의 정당과 단체들이 김대중씨 석방을 위해 하나둘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SI와

국제사면위원회, 엠네스티 등에서는 공개적으로 한국정부를 규탄했고, 각국 정부도 전두환 정권의 만행을 비판 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1970년 서독총리로는 최초로 동독을 방문해 동·서독 교류의 물꼬를 튼 뒤 1972년 11월 동·서 조약을 체결했던 독일사회당 브란트 총리의 경우 한국 정치상황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며 유럽동포운동을 후원해 큰 힘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김대중씨 구명운동은 유럽동포운동의 양적·질적 발전을 이룬 원동력이 되었다. 우호적 지지자들이 대거 운동에 뛰어들었고,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흔쾌히 털었다. 유학생들은 하던 공부를 뒤로 밀쳐두고 통역과 번역, 각 나라 말로 유인물을 제작하는 일에 팔을 걷어붙였다. 종교인들도 유럽의 종교지도자들을 만나 한국 정치상황에 관심 가져 줄 것을 호소했다.

이러한 활동은 조직의 확대로도 이어졌다. '베를린 노동교실(회장 윤운섭)' '전태일기념사업회 유럽본부(대표 김대천)' 등이 결성됐고, 원풍모방, 동일방직 분규를 지켜본 '재독한인여성모임' 회원들은 한국여성노동자 지원을 위해 힘을 모았다. 또 문부식, 김현장씨의 미문화원 사건을 계기로 '양심수후원모임'이 결성돼 구속된 조국의 동지들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또한 매년 '오월민중제'와 '갑오동학농민제' 등 다양한 대중행사를 개최해 유럽사회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독일지식인들과 연대해 '한독문화협회' '한국학술연구원' 등을 결성, 한국의 정치현실은 물론 한국문화와 역사를 알려나가는 데에도 힘을 썼다. 이러한 성과는 1987년 재유럽민주한인협의회(유럽민협, 1989년 재유럽민족민주운동협의회로 개칭, 의장 윤이상) 결성으로 모아졌고, 유럽민협은 이후 유럽동포운동의 연대조직으로 우뚝 섰다.

이 시기야말로 유럽동포운동의 전성기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반체제인사' '친북인사' 심지어 '북한공작원'이란 낙인이 찍혀야만 했다. 게다가 시시각각 조여드는 정보기관의 압력과 협박 속에 이들이 결국 '정치망명'의 길을 걸어야 했던 것은 이 시기의 아픈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유럽에서 타오른 통일의 불꽃

1990년 11월 19일, 유럽동포운동가들은 이날을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있다. 바로 독일 베를린에서 남·북·해외 대표들이 모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결성을 결의한 날이기 때문이다. 1988년 남쪽 인사 1014인의 '통일선언'과 1989년 1월 결성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의 범민족대회 제안을 시작으로 남과 해외의 운동가들은 본격적인 통일운동에 나섰다. 비록 1990년 1차 범민족대회가 남쪽 정부의 반대로 분산개최됐지만 범민족대회 후 이들은 상설적인 범민족통일운동체 결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해 나갔다. 그 결과 남·북·해외의 대표들이 독일 베를린에 모여 역사적인 범민련 결성을

선언하기에 이른 것이다.

범민련 결성은 해외동포운동의 방향을 조국통일운동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민주주의에 눈뜨면서 점차 한국 독재정치의 뿌리에는 분단과 반통일의 역사가 놓여 있음을 깨달았던 해외동포운동가들은 남과 북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가교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특히 유럽동포운동은 1970년대 이미 분단과 통일의 문제를 토론하면서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모색했고, 나아가 분단 후 최초로 해외동포들과 북쪽 인사들간의 만남을 성사시킨 바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국통일해외기독교자회(기통회)가 개최한 '통일대화'이다.

1972년 냉전체제를 허문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과정에는 동서의 냉전과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독일기독교자들의 역할이 컸다. 분단의 장막을 넘나든다는 의미에서 '그랜즈갱어'라고 불린 그들은 독일이 분단된 날부터 쉬지 않고 동·서독을 왕래하면서 사회주의와 기독교의 전통적인 원수관계를 공존과 대화관계로 탈바꿈시켜왔다. 그들의 인상적인 활동에 주목한 한인기독교인들은 한반도의 '그랜즈갱어'가 되길 희망했다. 1980년 이화선, 이영빈 목사를 주축으로 기통회를 결성한 이들은 기독교와 사회주의의 화해, 나아가 남과 북의 화해와 통일을 추구했다. 그 결과 1981년 11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분단 후 최초로 '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기독교 신자간의 대화'를 개최했던 것이다.(이 행사에 북측 대표로 나온 사람은 조선기독교연맹의 허정숙, 김득룡, 영국별씨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전금철, 여연구씨 등이다.)

1986년까지 5차에 걸쳐 개최된 '통일대화' 추진과정은 말 그대로 가시밭길이었다. 애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1차 대회 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에서 제네바에 사무실을 둔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WCC)에 집단적으로 물려와 WCC의 '통일대화' 인정에 대해 '항의데모'를 하는 통에 어쩔 수 없이 장소가 오스트리아 빈으로 변경되는 일도 있었다. 1970년대부터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신장에 큰 역할을 했던 KNCC조차도 분단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던 시절의 슬픈 초상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유럽의 통일운동은 한국의 민간통일운동이 활성화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1989년 3월 문익환 목사의 방북에는 유럽기독교인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따랐다. 1989년 7월 전대협 임수경 대표의 방북을 비롯해 연이은 전대협, 한총련 학생들의 방북도 유럽동포운동의 협조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일이었다. 당시 임수경씨가 일본을 거쳐 베를린에 왔을 때, 안기부의 추적을 따돌리고 임씨를 조선민항에 태워 평양으로 '입성'시키는 데 성공한 것도 바로 유럽동포운동조직이었다.

분열과 침체, 그리고 상처들

하지만 뒤이어 위기가 닥쳤다. 그 위기의 근원에는 역설적이게도 범민련이 있었다.

역사적인 범민련 결성을 이끌어낸 유럽동포운동이었지만 그 활동과정은 그리 순탄하지 못했다. 해외범민련 결성 초기부터 “범민련 활동이 유럽지역의 조건과 특성을 반영하기보다는 일본동포운동 조직에 끌려 다닌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조직내부에 이북사회에 대한 인식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게다가 1970~80년대에는 해외동포운동이 국내운동에 영향을 끼쳤던 것과는 달리 1980년대 후반 이후에는 양적, 질적으로 발전한 국내운동에 의해 해외동포운동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렇다보니 범민련을 둘러싼 국내운동의 분열이 그대로 해외동포운동에 투영돼 해외범민련의 분열을 촉진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1995년 11월 유럽동포운동의 대표적 지도자였던 윤이상 선생이 서거하고, 정규명 선생(유럽 범민련 초대 의장)도 병마에 시달리면서 중심을 잃은 조직의 분열은 더욱 확산됐다.

유럽동포운동의 분열에는 또한 안기부의 치밀한 정치공작도 크게 작용했다. 1990년대 유럽동포운동은 ‘프락치 노이로제’에 시달릴 만큼 프락치 사건이 빈발했다. 분열과 대립의 틈을 뚫고 들어온 이들은 20대 유학생에서부터 60대 좌익활동가까지 신분이 다양했다고 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초아무 교수 사건을 꼽을 수 있다.

지방 대학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해직된 민교협 간부 출신의 초교수(국가보안법 관련 책자를 펴냈을 만큼 진보적인 교수로 알려져 있다)가 독일에 온 것은 대략 1994년 전후. 그는 오자마자 동포운동가들을 만나 “범민련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그의 국내활동과 명성을 의심치 않았던 동포운동가들은 그를 범민련 핵심간부로 임명했고, 독일생활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했다고 한다. 하지만 초교수가 결합한 뒤 유럽범민련은 급격히 좌편향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뛰어난 말솜씨와 필력을 갖춘 초교수는 이를 교묘히 합리화하면서 반대세력들을 개량주의, 기회주의로 몰아붙였고, 이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범민련을 떠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초교수의 정체가 드러난 것은 1998년. 당시 베를린 주재 북한 대표부의 기아무 참사가 미국으로 망명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기참사는 다름 아닌 유럽 범민련의 북쪽 상대자였다. 그런데 기참사와 비공식적으로 관계를 맺어왔던 초교수가 기참사의 망명과 함께 범민련과 관련된 모든 문서와 디스켓을 들고 사라져버렸다고 한다.(현재 초교수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격적인 사태를 접한 동포운동가들은 그때서야 초교수가 안기부와 관계 맺고 유럽범민련을 와해하기 위해 독일에 왔으며 북측 간부의 망명사건에도 깊숙이 개입된 것을 확인했지만, 범민련 유럽본부가 입은 상처는 이미 회복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중단했고, 인간관계도 여지없이 파괴돼버린 것이다.

유럽취재 도중 만난 많은 동포운동가들은 분열의 틈으로 파고든 이같은 파괴공작의 후과 앞에 모두들 힘들어했다. 서로가 서로를 믿기 힘들게 된 것처럼 안타까운 일

이 또 있을까. 상처가 아물기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였다.

1960~70년대에 20~30대의 나이로 유럽에 왔던 동포운동가들은 지금 모두 50~60대의 초로반백이 되었다. 정치망명의 길을 택해 지금은 대부분 현지국적을 취득한 이들은 이역만리 타국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이들 중에는 체류연장을 위해, 혹은 국적 취득을 위해 현지사람과 결혼해 가정을 이룬 사람도 많다. 1970년대에 장기체류를 허가받은 간호사들은 지금도 현직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지만, 취업 당시 3년 계약으로 왔던 광부노동자들은 택시운전사나 혹은 식당, 여행사 운영 등으로 생계를 잇고 있다. 또 현직에서 은퇴하고 연금에 의지해 생활하는 이들도 많았다. 자식들은 성장해 대부분 대학을 다니거나 결혼해 나가 살고 있었다. 하지만 젊은 시절 번 돈을 모두 조국민주화운동에 쏟아 붓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다들 힘에 부친 상태였다.

다시 통일조국을 향하여

그러나 민족애와 통일조국을 향한 이들의 신념은 꺾일 줄 모른다. 특히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뒤로는 범민련 활동의 아픔을 딛고 유럽동포운동의 새로운 방향과 전망을 준비하려 애쓰고 있다. 물론 그 길은 이제까지 걸어온 길보다 더 험한 길인지도 모른다. 활동력이 크게 감소된 나이도 그렇고, 두 번의 민간정부 출범 후 여러 사람들이 결국 입국을 선택해 활동가들의 수도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장기적인 유럽동포운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2세들에 대한 민족교육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다. 늙고 병든 자신들이 젊은 시절 그토록 매달리며 지키고자 했던 민족의 혼과 얼, 통일에 대한 신념들을 자식들이 직접 느낄 수 있을 때, 동포운동의 맥이 이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민족학교와 문화모임 결성에 힘을 쏟고 있는데, 베를린의 ‘세종학교’(민족학교, 교장 김종한)와 ‘천동소리’(풍물모임, 단장 최영숙), 보훔지역의 ‘한국민중문화모임’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19박20일의 유럽취재 기간 동안 기자는 이들을 만나 밤새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속 깊이 울음을 삼켰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망명객 처지로 겪었던 고초와 고국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을 감출 것 없이 기자에게 표현해올 때, 가슴 저미는 아픔도 느꼈다. 과연 이들은 고국의 품에 안길 수 없는가. 무엇이 이들의 고국방문을 가로막고 있는가.

12월 10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 김포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던 기자는 ‘요시찰대상’을 알리는 빨간 줄이 신상카드에 그어져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유럽의 ‘망명객’을 만나러 갔기 때문이리라. 이처럼 현실의 분단장벽은 여전히 높았다.

유럽동포운동가들의 삶, 그리고 철학
망명객 아픈 가슴마저 가로지른 분단선

■ 이 종 현

“분단의 경계선 앞에 주저앉고 침묵하기보다는 경계를 넘나들며 온전한 민족을 꿈꾸었던 유럽의 동포운동가들. 역사의 물줄기에 기꺼이 한 몸 던진 이들 '망명객'에게 이젠 조국도 품을 열 때가 되지 않았다. 무너지는 분단장벽 너머로 통일의 새 기운이 움터가는 오늘, 그들의 묻혀진 역사를 여기 공개한다.”

루르 지방. 쾰른과 뒤셀도르프, 뒤스부르크, 에센, 보쿰 등 라인강 유역 도시를 따라 펼쳐진 독일 최대의 중공업지역인 이곳은 1960~70년대 광부로 파견된 동포들이 대거 정착한 곳이기도 하다.

뒤스부르크역에 마중 나온 이종현 선생(65)과 함께 우리는 먼저 보쿰에 있는 '한국의 집'을 방문했다. 토요일인 이날은 '한국민중문화모임' 주최로 토론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동포들과 한국의 정치현실을 주제로 여러 이야기를 나눈 뒤 뒤스부르크의 이종현 선생 집에 도착한 시각은 밤 11시.

1965년 광부로 독일에 건너온 이 선생은 3년 계약기간을 마친 뒤 뒤스부르크공대에 입학했고, 오랫동안 루르 지방에서 노동자 생활을 했다. 1975년 재독한인노동자연맹을 결성해 의장을 역임했던 그는 유럽민협 사무국장 및 의장, 한독연대조직인 코리아협의회 부의장으로 활동하는 등 동포운동 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그는 지난 시절 동포운동을 떠올리면서 “당시 우리는 조국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식이었다”고 표현했다. 또 “독일 관청에서 우리들에게 '한국영사관을 출입할 때 꼭 2명 이상 함께 가라'고 신신당부할 정도였다”며 씩씩히 웃음 지었다. 동백림 사건 당시 한국인 16명을 강제 납치했던 중앙정보부의 '악명'이 독일사회 내에서도 자자했던 것이다.

“유럽에서도, 한국에서도 우린 영원한 이방인”

그의 회고담을 들으면서 주머니 받거나 한 포도주가 어느 새 6병이 비워졌다.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튿날 오전 그와 같이 라인강 인근 공업지대를 쭉 둘러봤다. 엄청난 규모의 공장에서 뿜는 연기를 보면서 그가 말했다.

“라인강의 기적에는 한국노동자의 피땀도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에서도, 한국에서도 우리는 영원한 이방인이죠.”

점심식사를 위해 집에 돌아오니 그의 부인 우즈라씨(60)가 식탁 가득 한국음식을 장만해놓았다. 두부요리와 각종 나물, 잡채, 미역국, 그리고 텃밭에서 가꾼 배추로 담은 김치... 눈이 휘둥그레진 기자에게 우즈라씨가 웃으며 말했다. “이젠 저도 한국사

람이 다 됐어요.”

■ 이 영 빈

“분단의 경계선 앞에 주저앉고 침묵하기보다는 경계를 넘나들며 온전한 민족을 꿈꾸었던 유럽의 동포운동가들. 역사의 물줄기에 기꺼이 한 몸 던진 이들 '망명객'에게 이젠 조국도 품을 열 때가 되지 않았다. 무너지는 분단장벽 너머로 통일의 새 기운이 움터가는 오늘, 그들의 묻혀진 역사를 여기 공개한다.”

배드소텐-윈스터는 프랑크푸르트에서 40여km 떨어진 인구 수천 명의 전원마을로 인근에 온천이 자리잡고 있어 퇴직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 한적한 시골 역 플랫폼에 내려서자 큰 키의 노신사가 다가왔다.

“안 기자, 참으로 반갑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는 47년째 '탑승불가'

그는 고국에서 찾아온 기자를 금세 알아봤다. 1948년 감리교신학교를 졸업하고 전쟁의 참화 속에 목회활동을 하다 1955년 독일로 유학왔던 이영빈 목사(75). 당시 프로펠라 비행기를 타고 서울 여의도비행장을 떠나 도쿄, 마닐라, 방콕, 아바단, 로마, 취리히를 거쳐 프랑크푸르트에 도달하기까지 총 60여 시간이 소요되던 여행길은 이제 10시간 남짓으로 줄어들었지만 그에게 서울행 항공편은 오늘도 '탑승불가'다. 독일사회 내에서는 탁월한 신학자로 알려진 그이지만 한국정부로부터는 여전히 '친북인사'란 규정을 받고 있을 뿐이다.

그의 차를 타고 2~3분 거리인 자택을 향했다. 자택에서는 부인 김순환 선생(73)이 저녁식사 준비에 한창이었다. 감신대 후배이기도 한 김순환 선생은 이 목사에게는 신학연구와 통일 운동의 둘도 없는 평생동지다. 노부부가 정성껏 차린 저녁식탁에 앉자 벽에 걸린 대형 사진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김일성 주석과 이들 부부가 평양 주석궁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1992년 방북 때 찍은 사진입니다. 김 주석께서는 생전에 해외동포 신학자들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 노력한 것을 고맙게 여기곤 했죠. 방북 때마다 따뜻한 배려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 부부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통일대화'다. 1980년 유럽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해외기독교자회(기통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통일운동에 뛰어든 이들은 1981년부터 매년 다섯 차례에 걸친 '북과 해외 기독교자간의 통일대화'를 통해 통일을 위한 초석을 놓았던 것이다.

애초 5년을 예상하고 왔다는 독일생활이 어느덧 46년이 흘렀다. 함경남도 안변군 신고산에서 태어나 해방 이듬해 신학공부를 위해 월남한 이 목사가 겪은 남쪽 생활은

불과 9년. 북에는 돌아가신 부모님과 친척이 살고 있었던 연유로 그동안 몇 차례 방문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

“짧은 생활이다 보니 내게 남쪽의 조국은 산천의 모습으로 담겨져 있지 않아 역사를, 사회를 혁신하려는 남쪽 사람들이 바로 나의 조국이야. 멀리서나마 그들과 연대하면서 한 줌의 조국애를 불태울 따름이지만 이 조국을 나는 너무도 사랑해.”

하지만 1994년 남쪽 기독교인사들의 초청을 받아 서울을 찾았을 때, 그는 김포공항에서 ‘입국거부’당했다. 결국 비행기 차창 너머로 하늘에서 잠시 내려다본 산천이 지난 55년 동안 그가 느낄 수 있었던 유일한 조국의 실체였다.

고암 이용로 화백의 영전에 드립니다.

- 이영빈 -

저는 이용로 선생님을
1957년 독일 본에서
처음으로 뵈었고 사귀는 날부터
선생님을 더욱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이 선생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 하셨지요.
“모든 인간이 쉬지 않고 창작하고 즐기는
미(美)의 세계, 아름다운 세계는
동(東)과 서(西)로 갈라 놓을 수 없다 “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재래 지역주의적 전통 미술의
과거 관념을 청산하시고
동(東)과 서(西)가, 온 인류가
공존하고 공동작업하는
새로운 시대인 ‘범세계 미술’을
시작 하셨습니다.

이 화백에게는
서울도 파리도, 멕시코도 아디스 아바바도
어느 곳도 다 고향일 수 있지요.

이 선생님이 창작하신
그 아름다운 작품들은
그래서 아무나 어디서나
다같이 즐길 수 있는 것이지요

존경하고 친애하는 이용로 선생님!
그리고 또 이 선생님은
그 아름다운 미(美)의 세계를
진(眞)과 선(善)의 세계와 관계없는
피안에서 창작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미(美)의 세계에 대하여
그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것처럼
이 선생님은
인간의 악(惡)을 열정적으로 미워하셨습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악(惡)의 세력을
한 치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이나 한국의 민중을
괴롭히던 3대 독재자들과
이 선생님은 자리를 같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험박과 간교한 유혹도
선(善)을 고수하는 이 선생님을
조금도 요동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선생님, 미(美)의 작품에서
우리는 어디서나
미운 것에 대항하고
삶을 향한 인간의 대행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우리 나라 분단에 대한 분노,
우리 나라 통일로 달리는
전 민족의 즐기찬 대행진은

이 선생님의 정열의 최고점이요
생애의 마지막 대 작품,
유일한 제목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그때 1959년
본에서 파리로 떠나실 때
저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가족이 사슴을 타고
폭군 헤롯왕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난가는 장면의
묵화(墨畵)입니다.
이 선물로서 이 선생님은
참 것을 탐구하고
진리(眞理)를 찾아 가는 길에서
저를 동료로 삼으셨습니다.
거짓을 허용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을 규탄하려면
거짓의 폭행자들에게서
추방과 고난을 각오해야 한다는
삶의 진리를 지적 하셨습니다.
고난은 잠시적이거나
그러나 진리(眞理)는 승리한다는
인류의 희망을
더 강조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선생님은
30여년간 해외에서
추방 당한 우리 동포들의
앞장을 서셨습니다.

이 긴 거짓과 악의 밤은 끝나가고
동녘이 붉어 옵니다.
선생님의 작품이
서울에서 전시된 것을

바로 지난 주에
저는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달 말에
드디어 서울에 입성 하신다고 전해 듣고
저는 환성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서울입성'을 눈 앞에 두시고
이 선생님은 영영 타향에 머무르시는군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하고
40년동안 광야를 통과하고
드디어 희망의 나라, 약속의 나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며
그의 삶을 맺은 것 같이...

그러나 이응로 선생님이
창작하신 무한한 미(美)의 세계,
전 인류를 하나로 묶는 아름다운 세계,
악(惡)을 미워하고 선(善)과 짝하는 아름다운 세계,
거짓을 용납 하지 않고
부단이 참된 것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세계는
선생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항상
삶의 지침이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와같이 이응로 선생님은
괴테(Goethe)의 말을, 행동으로
다시 확인 하셨습니다.
"dem wahren schoenen Guten"
그러나 이 선생님은 다르게 쓰셨습니다.
"선하고 진실한 아름다움을 위하여..."

(1989년 1월 16일)

■ 이희세

“분단의 경계선 앞에 주저앉고 침묵하기보다는 경계를 넘나들며 온전한 민족을 꿈꾸었던 유럽의 동포운동가들. 역사의 물줄기에 기꺼이 한 몸 던진 이들 ‘망명객’에게 이젠 조국도 품을 열 때가 되지 않았나. 무너지는 분단장벽 너머로 통일의 새 기운이 움터가는 오늘, 그들의 묻혀진 역사를 여기 공개한다.”

음악가 윤이상, 비디오예술가 백남준과 더불어 한국 출신의 유럽 예술계 3대 거목 중 한 사람인 이용로 화백의 조카이기도 한 이희세 선생은 호탕한 성격의 선 굵은 예술가다. 1951년 홍익대 동양화과(1기)에 입학한 그는 재학 당시 학생회장을 역임하는 등 대외활동에도 적극적이었지만 교수들로부터 “장차 한국 화단의 판도를 바꿀 재목”이란 평을 들을 만큼 출중한 실력을 인정받고 있었다.

서른의 나이에 모교 강사로 부임했던 그는 1965년 큰아버지인 이용로 화백의 초청으로 파리에 유학 왔다. 그런 그가 동포운동에 적극 나서게 된 계기는 동백림 사건 때문. 당시 이용로 화백이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 한국으로 끌려가는 것을 지켜본 그는 붓 대신 유인물을 들고 한국정부를 규탄했고, 이러한 활동은 30년 이상 지속돼왔다.

이희세 선생을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은 1973년부터 3년 동안 참여했던 라스코(Lascaux) 동굴벽화 재생작업이다. 1940년 몽티냐 지방 소년들이 우연히 발견한 라스코 벽화는 스페인의 알타미르 벽화와 더불어 대표적인 선사시대 벽화다. 1~5m에 이르는 말, 사슴, 들소 등이 빼어난 솜씨로 그려져 있는 벽화는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유물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 벽화의 훼손을 막기 위해 라스코 동굴을 그대로 본뜬 인공동굴을 인근에 만들었다. 이때 벽화 모사작업에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화가들이 참여했는데, 특히 이희세 선생에게는 벽화의 대표그림이라 할 검붉은 들소 그림이 맡겨졌다. 동양적 신비감이 짙게 깔린 벽화를 제대로 재생할 화가로 이희세 선생만한 인물이 없음을 프랑스 미술계도 인정했던 것이다.

다음날 오후 이우갑 신부와 함께 이희세 선생 집—1973년 동굴벽화 작업을 위해 마련해둔 집—에서 10km 남짓 떨어진 라스코 동굴을 찾았다.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인공동굴은 원래의 동굴과 벽면의 종유석 조각까지 일치하는, 그 자체로도 놀랄 만큼 뛰어났다.

입구에는 프랑스어로 제작과정에 참여한 화가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이희세 선생의 이름도 눈에 띄었다. 입구에 들어서니 정면에 이 선생의 그림이 전시돼 있었다. 그림의 특징과 의미를 세세하게 설명하는 강사의 해설을 들으면서 문득 ‘고집불통 화가’를 떠올렸다. 이 그림을 마지막으로 이 선생은 붓을 접었던 것이다. 예술적 명성보

다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온몸 바치는 것을 더욱 소중하게 여겼기에 20여 년 동안 창작과는 담을 쌓아왔던 화가. 과연 누가 그에게 조국과 예술의 불일치를 강요했던 말인가.

다시 파리로 돌아온 것은 밤 9시. 민박집을 잡아놓고 모처럼 관광에 나섰다. 이날부터 전도시가 크리스마스 경축 불빛을 밝힌 파리의 야경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에펠탑을 거쳐 콩코르드 광장에서 개선문까지 이어지는 샹젤리에 거리를 거닐며 화려한 파리의 불빛에 취하고, 소르본대학 부근 선술집에 들러 스페인식 포도주에도 취해봤지만 내내 머리 속을 맴돈 것은 망명객 화가의 다음 말이었다.

“죽을 날이 가까워져서인가... 남은 여생을 이곳에서 그림 그리는 일에만 쏟을 작정입니다. 여기저기 뛰어다닐 기력도 없는 늙은이가 되어서야 다시 화폭 앞에 서게 되는군요.”

“서울의 동승동 캠퍼스는 어떻게 변했죠? 종로 거리며, 남산자락이며 지금도 옛 모습이 남아 있나요? 그리고 보니 벌써 40년이 넘었군요. 살아 생전에 돌아갈 수 있을지... 요샌 내 몸이 말이 아니에요. 작년에 위 수술을 받고 나서부터 서울 생각이 부쩍 잦아지네요.”

■ 최기환

“분단의 경계선 앞에 주저앉고 침묵하기보다는 경계를 넘나들며 온전한 민족을 꿈꾸었던 유럽의 동포운동가들. 역사의 물줄기에 기꺼이 한 몸 던진 이들 ‘망명객’에게 이젠 조국도 품을 열 때가 되지 않았나. 무너지는 분단장벽 너머로 통일의 새 기운이 움터가는 오늘, 그들의 묻혀진 역사를 여기 공개한다.”

스위스 제네바에 살고 있는 최기환 선생(72)은 서울 보성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20대의 나이에 중앙대 정치학과에서 조교수로 활동했던 그는 서울 토박이였다. 1년 전 위암수술로 현재 외출조차 불가능한 상태인 그는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했다.

“그람시를 안다고? 그럼 결혼을 허락하지”

1950년대 말 독일로 유학을 와 본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그의 귀국길이 막힌 것은 동백림 사건 때문이다. 당시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집에 들이닥쳐 그를 끌고 갔지만 다행히 한국의 감옥행은 면했다. 영세중립국을 표방했던 스위스 정부가 그의 연행에 반발했고, 이를 묵살한 채 끌고 가기엔 한국정부의 부담도 컸기 때문이다. 결국 나흘 동안 호텔 방에서 협박에 시달리다 풀려났지만 고국행은 그것으로 봉쇄되고 말았다.

최기환 선생은 동포운동 내에서 문장가이자 이론가로 유명하다. 1980년대 초 자비를

들어 민중출판사를 운영하기 시작했던 그는 '민중서고'란 이름으로 37권의 단행본을 한국어와 불어 등으로 발간했다. 그중 상당수를 직접 저술했던 그는 특히 제3세계 민족문제와 민족해방운동, 통일운동에 대해 탁월한 이론적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능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것은 결혼 때. 1961년 제네바대 연구조교로 일하던 그는 당시 제네바대 1학년이었던 부인 미렐라씨(58)를 만나 사랑을 나누었다. 문제는 14살 연하에다 상당한 미인이었던 미렐라씨의 집에서 볼품없는(?) 동양청년에게 딸을 줄 수 없다고 나선 것. 독하게 맘먹고 밀라노의 예비 처갓집을 방문한 그는 장인 될 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침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그람시가 소재로 등장했다고 한다. 알고 보니 장인은 이탈리아 공산당원이었다. 이때 장인은 그람시에 대해 막힘없이 설명하는 최 선생에게 매료됐고, 그 즉시 결혼을 승낙했다고 한다.

최 선생은 결혼 후 부인과 함께 제네바에서 국제기구 통역과 번역 일을 하면서 사회과학 공부에 더욱 몰두했고, 동포운동 내에서는 국제기구를 통해 한국의 정치상황과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일에 앞장섰다. 특히 그는 사형선고를 받은 김대중씨의 구명을 위해 유엔 인권위원회 앞에서 매일같이 피켓시위를 벌이는 등 헌신적으로 활동했다.

베를린 시내에 울려 퍼진 정신대 만행 규탄 합성

11월 23일 오후 2시 재독한국여성모임과 베를린 노동교실, 함부르크 새한인교회 등이 주최한 '일본의 정신대 만행 규탄집회'가 열린 베를린 시내 비텐베르거 광장. 흥겨운 사물놀이가 시작되자 길을 가던 베를린 시민들이 멈춰섰다. 광장 주위에는 일본의 정신대 만행을 담은 사진과 피켓, 플래카드가 펼쳐졌고, 여성모임과 노동교실 회원들이 익숙한 솜씨로 유인물을 나눠주고 있었다. 서울과 도쿄, 베를린에서 동시에 개최된 이날 집회는 12월 8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국제전범재판소 사전 결의대회로, 특히 독일과 유럽의 시민단체와 재독일본여성모임에서도 참석해 일본의 정신대 만행을 규탄했다.

"일본정부는 정신대 만행을 인정하라! 사죄하라! 보상하라!"

1백여 명의 참가자 들이 외치는 구호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독일 특유의 잔뜩 찌푸린 초겨울 날씨가 매서웠지만 참가자들은 연신 주먹을 치켜올리는 '한국식' 구호제창에 열심이었다. 집회장 앞 서명대에는 베를린 시민들이 늘어섰고, 초록색 복장의 독일경찰들도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집회를 지켜보았다.

이날 집회에서는 재독한국여성모임 국제소위원회 한정로 대표(55)와 여성모임 김진향 총무(58)를 비롯해 독일과 일본여성들이 나와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식민지 국가들에 대한 반인륜적 만행에 대해 지금까지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의 정신대 만행을 강하게 비판하고 국제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집회는 줄곧 독일어로 진행됐지만 분위기와 주변 광경은 전혀 낯설지 않았다. 마치 한국의 일본대사관 앞 정신대 수요집회를 보는 듯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완전무장한 한국의 전투경찰 대신 여유만만한 독일경찰이 배치된 점일 뿐. 기자 곁에서, 발언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통역해주던 노동교실 김아일 회장은 "베를린 시민들에게도 이제 한국 사람들의 집회가 낯설진 않을 것"이라며 말을 덧붙였다. 그 말 속에서 웬지 착잡함이 묻어나왔다. 살길을 찾아 머나먼 타국 땅에 들어온 지 어언 30여 년. 그러나 조국의 현실은 먹고사는 문제만도 버거운 그들에게 또 다른 일감을 던져주었다. 이토록 고단한 역사(役事)를 오늘까지도 묵묵히 감당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오후 4시. 한국과 독일, 일본여성대표 3인이 항의서한을 들고 집회장에서 1백여 미터 떨어진 일본대사관으로 향했다. 이윽고 풍물 소리에 맞춰 아리랑 노래가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비텐베르거 광장에 울려 퍼졌다.

루르 지방 한인노동자들의 뿌리지기

유럽 취재 6일째인 11월 25일 오전 기센역을 출발해 뒤스부르크역으로 향했다. 뒤셀도르프를 거쳐 뒤스부르크에 도착할 때까지 라인강변을 따라 이어진 수십km의 공장지대는 이곳이 바로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킨 독일 최대 공업지역임을 실감하게 했다. 뒤스부르크역에서 만난 이종현씨(64, 전 재독한인노동자연맹 의장)의 안내로 찾아간 곳은 보훔에 있는 '한국의 집' 건물이었다. 1950~70년대 탄광산업과 철강공업으로 그 이름을 세계에 떨친 유럽의 대표적인 중공업지대 독일 루르 지방은 바로 한국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배인 곳이다. 1963년 1차 파독 광부가 정착한 이래 1977년까지 연 인원 3만여 명이 거쳐간 이곳에서 광부노동자들은 1천여m 지하막장에서 그들의 청춘을 바쳤다.

이날은 루르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한국민중문화모임의 정기토론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30명 남짓 참가한 토론회의 주제는 '독일내 극우파—신나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강사는 쾰른에 거주하는 간호사 출신의 주재순씨였다. 독일인들의 외국인 차별주의와 특히 극우파—신나치들에 의한 외국인 적대정책이 어디에서 비롯되며, 동포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놓고 2시간 이상 강연과 토론이 계속 됐다. 토론회는 마치 학술토론회를 연상시킬 만큼 수준이 높았다. 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막힘 없이 펼쳐내는 이들의 모습에서 일상화된 학습과 토론의 분위기가 느껴졌다. 한편 안쪽 방에는 장구와 북, 팽과리 등 풍물악기들이 가지런히 정돈돼 있었다. 민족문화를 잊지 않고 지켜나가는 이들의 노력은 이제 독일 내에서도 공연요청을 받을 만큼 탄탄한 실력을 자랑하고 있다고 한다.

토론회가 끝나자 회원들 각자가 준비해온 반찬들로 부페식 저녁식사가 차려졌다. 어

디에서 재료를 다 구했을까 궁금증이 일 만큼 김치와 육개장, 각종 나물과 전, 튀김, 젓갈 등이 식탁을 가득 채웠다. 일상의 전통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이들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계기였으리라. 독일로 나왔던 1960~70년대의 정서와 인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들의 따뜻한 배려에 가슴 뭉클한 것도 잠시, 기자는 국내 소식에 목마른 이들의 연이은 질문에 2시간 가까이 강연 아닌 강연을 해야만 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남쪽 국민들의 반응,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 문제, 제2의 IMF는 올 것인가...

술한 질문 중 선뜻 답하지 못한 것은 다음 한 가지였다.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들의 활동이 국내에는 어떻게 알려져 있는가.' 결국 이 물음이 기자에게는 3주간의 유럽 취재 내내 화두가 되고 말았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명예회복뿐”

“김대중 대통령께서 1998년 취임 후 처음 독일을 방문했을 때, 본 대사관에서 교민들을 초청해 환영만찬을 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초청받아 참석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의 사형선고를 규탄하며 유럽 각지에서 구명운동을 할 때 ‘간첩 김대중을 사형시키라’며 시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은 여전히 계속되어야만 함을 느꼈습니다.”

지난 11월 초 정부당국이 “해외 반체제인사들에 대한 조건 없는 입국허용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국내일간지에 보도된 바 있지만 유럽동포운동가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우선 희망자 전원의 입국을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일절 언급이 없는데다가 정부가 시종 ‘관용적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예전처럼 준법서약서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결국 전체 20~30명에 달하는 입국불허자 중 몇몇 사람들에 대한 선별적인 조치로 끝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다. 더구나 이들은 정부에서 말하는 ‘관용적 조치’를 유럽동포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짓밟는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 관용이란 말 그대로 잘못된 사람에 대해 넓은 아량으로 용서한다는 뜻일 텐데 이들은 지금 무엇을 용서받아야 하는지 되묻고 있는 것이다.

짧게는 30년, 길게는 40년 가까이 고국을 떠나 유럽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정착 아닌 정착을 끝낸 이들에게 ‘고국방문’은 말만 들어도 가슴 뛰는 일이다.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아들, 딸들을 목메이게 부르다 눈을 감은 부모님, ‘친북인사’로 몰린 자신들 때문에 늘 경찰과 정보기관의 등쌀에 시달려야 했던 형제들, 유럽에서 자신들을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간첩으로 몰려 호되게 치도곤을 당한 지인들...

게다가 유럽 동포사회 내에서도 대사관과 안기부 직원들의 끊임없는 감시와 협박에 시달리지 않았던가. 그러면서도 저 흑독한 군사정권 시절, 가장 먼저 조국의 민주화와 군사정권 타도의 깃발을 올렸던 그들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유왕래보다 우선은 명예회복입니다. 이는 이역만리 땅에서 눈조차 제대로 감지 못한 채 숨져갔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도리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최소한 이제라도 우리들의 활동이 한국의 민주화에 작은 밑거름이 되었음을 인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1월 23일 베를린 외곽에 문헌 윤이상 선생의 묘소를 참배하러 가던 길에 한 ‘입국 불허자’가 던진 물음이다. 과연 정부는 무엇이라 답할 것인가.

송두울 교수, 황장엽씨 상대 소송 승리...

“간첩 누명만 벗었을 뿐이다”/ 손해 배상 청구 기각에 “항소하겠다”

시사저널 / 박성준 기자

재독 사회학자 송두울 교수(윈스터 대학)와 1997년 귀순한 전 북한 노동당 비서 황장엽씨의 법정 싸움은 송교수의 승리로 일단락되었다. 두 사람의 다툼은 1997년 황씨가 남한에 귀순하면서부터 발생했다. 황씨는 귀순한 뒤 쓴 저서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에서 북한에 있을 때 북한 대남담당 김용순 비서에게서 들은 말을 근거로 하여 송두울 교수를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고 단정적으로 지목했다. 송교수는 이에 반발해 황씨를 '명예 훼손'으로 고발하고 1억원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3년 가까이 끌여온 법정 싸움은 지난 8월 23일 결론 났다. 이 날 서울지법 민사합의 16부(재판장 허광호 부장 판사)는 '황씨의 주장은 진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명예 훼손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송교수가 황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이유는 황씨의 주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며, 황씨가 송교수를 김철수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송교수는 지난 8월 24일 <시사저널>과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간첩 누명'을 벗어 홀가분해 하면서도 재판부의 최종 결론을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교수는 "황씨가 근거 없는 말로 내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고도 손해 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은 본론과 결론이 다른 논리 모순이다. 재판부의 고민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대로 끝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교수 측은 현재 손해 배상 부분에 대해 항소를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황씨 주장을 근거로 자신에 대해 파상적인 '북한 공작원 공세'를 펼쳤던 <월간 조선>과 한나라당에 대한 추가 제소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송교수는 '친북 인사'라는 이유로 1993년 한 차례 입국 시도가 좌절된 이후 줄곧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강의와 저술 활동 틈틈이 남북 교류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활동에도 열심인 그는, 수년째 자신이 이끌어온 '통일 학술회의'가 올해 서울에서 열릴 수 있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그는 또 오는 11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남북한 역사학자와 법학자들이 참가하는, 한·일 병합조약의 부당성을 공동 조명하는 국제 학술 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 박성준 기자 snype00@e-sisa.co.kr

[보도자료]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 결성식
- 8월 7일(목) 오전 11시. 기독교회관 2층 강당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결성됩니다.

독일 뮌스터 대학의 송두율 교수,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의 곽동의 의장 등 조국이 어려울 때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해 온 미주, 유럽, 일본의 많은 해외인사들이 아직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등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고 조국을 왕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의 각계인사 300여명은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해외민주인사 64명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고 고국자유왕래를 실현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이러한 노력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 결성식 1111111111111111

- ▶ 일시 : 2003년 8월 7일(목) 오전 11시
- ▶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강당 (종로5가)
- ▶ 행사순서 :

- 개회선언
- 민중의례
- 대회사
- 경과보고(임종인 민변 부회장)
- 임원소개 및 추인
- 축사(김원웅 의원, 천정배 의원)
- 격려사(박순경 박사)
- 해외민주인사 메시지(곽동의 한통련 의장, 김성수 박사, 송두율 교수)
- 해외민주인사 현황 발표
- 시어게희 바포
- 해외민주인사 9월 한가위 초청장 낭독
- 결성선언문 낭독
- 폐회

◎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 조직구성

■ 고문

강석주 (불교인권위원회 고문)
강신석 ((재)5.18기념재단 이사장)
강희남 (범민련남측본부 명예의장)
고 은 (시인)
김윤수 (민예총 이사장)
박상증 (참여연대 대표)
박순경 (통일연대 명예대표)
박용길 (통일맞이 고문)
박형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신경림 (시인)
신창균 (범민련남측본부 명예의장)
이든명 (민변 고문)
이재현 (Western illinois university 명예교수)
이종린 (범민련남측본부 명예의장)
임기란 (민가협 운영위원)
조화순 (목사)

■ 공동대표

강정구 (동국대 교수)
구중서 (평론가)
김세균 (서울대 교수)
김영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장)
김용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
김원웅 (국회의원)
라창순 (범민련남측본부 의장)
명 진 (범민련남측본부 후원회 대표)
박호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손호철 (민교협 공동의장)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유영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무처장)
유원호 (통일맞이 이사)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이종수 (KBS 이사장)
정진권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이사장)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
조성우 (민화협 상임의장)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
천정배 (국회의원)
최병모 (민변 회장)

최 열 (환경운동연합 대표)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
함세웅 (신부)
홍근수 (자통협 상임공동대표)
황석영 (소설가)

■ 집행위원장 : 임종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추진위원 : 각계인사 300여명

■ 추진위원회 참가단체 (7월 31일 현재)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민가협, 민변, 범민련, 통일맞이, 통일연대, 한통련대책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연합, 참여연대

◎ 추진위원회 사업계획

▶ 9월 한가위 귀국성사를 위한 집중사업

-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각계각층 탄원운동 전개
- 해외민주인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해외방문단을 조직하여 해외를 직접 방문

▶ 정부의 각종 관련기관과의 교섭

- 대통령, 국정원장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청와대, 국정원에 진정서 접수

▶ 홍보사업

- 홈페이지 제작, 메일 발송, 캠페인 등

▶ 법적대응과 국제연대

- 국가인권위 진정과 유엔 인권위 제소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 검토

▶ 일정별 계획

- 8월 5일

: 9월 한가위 귀국사업을 추진할 해외민주인사 명단 정리

- 8월 7일

: 범국민 추진위원회 결성식 때 9월 한가위 귀국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함.

- 8월 8일

: 대통령, 국정원장,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요청 공문 접수

: 법무부 입국 심사과에 입국심사요청 공문 접수

- 8월 18일 ~ 31일

: 법무부장관, 민정수석, 정무수석과의 면담을 추진한다.

: 대통령, 국정원장 면담을 추진한다.

- 9월 초

: 해외민주인사의 귀국성사를 위한 기자회견 및 캠페인 전개

- 한가위 귀국행사 (9월 18일(목) ~ 20일(토))

: 9월 18일 -> 환영만찬

: 9월 19일 -> 고향방문

: 9월 20일 -> 강연회, 좌담회 개최

◎ 문의

- 임종인(집행위원장 : 011-215-9274)

- 김건수(사무국장 : 011-9312-1172)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의 결성식에 보내는 격려사

스스로가 <민주인사> 또는 <통일인사>로 불려지는 것이 썩스럽습니다만, 그 암울했던 시절에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고통 속에서도 민주와 통일의 길을 의연히 택했던 그 많은 분들과 몸은 비록 외국 땅에 있었지만 마음이라도 함께 하고자 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오늘의 조국의 모습에 완전하게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절망에 가까웠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그래도 만족해야 하지 않느냐고 되묻습니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로 이어지는 민주화의 과정과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중요한 결실인 <6.15 남북공동선언>의 발표를 지켜본 많은 외국인 친지와 동료들은 그러나 종종 한국사회의 현실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토로합니다. 외국에서 그토록 조국을 사랑했고 그 때문에 적지 않은 고통까지 감내해야만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왜 그 땅을 밟을 수 없는가 라는 질문을 그들은 제기합니다.

지난 2월 <베를린영화제>에 초대되어 상영되었던 <경계도시>를 본 많은 외국관객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단어가 <준법서약>이었습니다. 우선 그러한 관행이나 법이 이 곳에는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상하기 힘들었으리라고 느껴졌습니다. 얼마 전 현정부가 그러한 <준법서약서>를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국내의 공안사범의 경우에만 <준법서약서>의 요구가 없어진 것이지, 과거 한국국적의 해외동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괴이한 <유권해석>이 나와 씁쓸함을 더했습니다.

<준법서약서>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해왔던 것에 대해서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독재와 분단을 반대하고 민주와 통일을 이룩하는 정말 어렵고 긴 투쟁을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 보려는 태도는 바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보편적인 인권으로 보지 않으려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발상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당연히 <국가보안법>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은 <준법서약>을 탄생시킨 <국가보안법>, 또 이 것을 정당화시켜왔던 <분단체제>의 극복으로 당연하게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오늘 결성을 보게된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는 민주와 통일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과정을 넓혀 가는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당장 해결해야만 할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특수하게까지 보여질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추진위원회>의 사업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동의를 이끌 수 있을지 저로서는 현재 가늠하기 힘듭니다만, 우리 현대사의 어두운 한 귀퉁이를 돌아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한 기대지평을 열어 보이는 뜻 있는 일이 반드시 귀중한 결실을 보여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겹고 무더운 장마철에 아무쪼록 여러 선생님 건강하셔야 합니다.